

南北韓社會文化交流 綜合對策

1974.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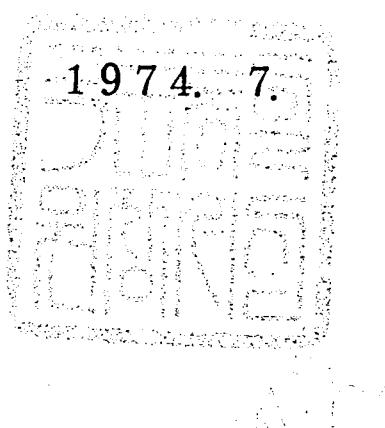
國 土 統 一 院

이 報告書는 國土統一院 74年度 學術用役에
關한 最終 報告書로 提出합니다

1974. 7.

研究機關： 慶南大學 極東問題研究所
研究責任者： 金 東 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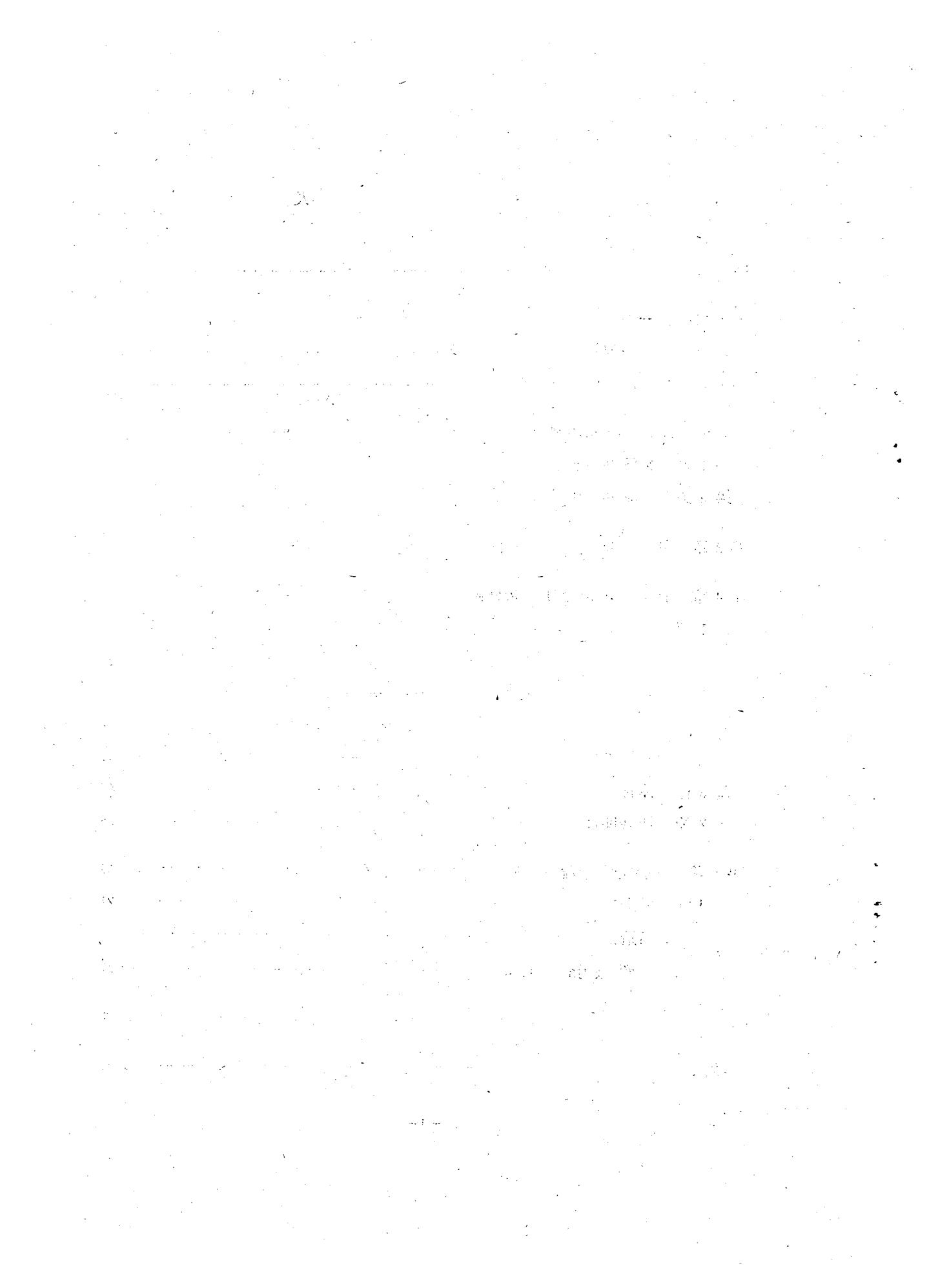
이 報告書는 國土統一院 74年度 學術用役에
關한 最終 報告書로 提出합니다



研究機關：慶南大學 極東問題研究所
研究責任者：金東熙

目 次

序 論	3
第 1 章 統一と 交流	13
第 1 節 統一政策	15
第 2 節 交流의 意味	20
第 2 章 交流의 基本概念	25
第 1 節 交流と 統合理論	27
第 2 節 交流と 機能主義	30
第 3 章 社会文化交流의 範囲	37
第 4 章 社会文化交流의 諸分野	43
第 1 節 学術交流	45
第 2 節 民俗交流	53
第 3 節 宗教交流	55
第 4 節 觀光交流	57
第 5 節 通信交流	60
第 6 節 体育交流	64
第 7 節 社会団体의 交流	66
第 5 章 社会文化交流의 戰略的 側面	69
第 1 節 段階的 側面	71
第 2 節 構造的 側面	75
第 3 節 協商 技術的 側面	77
結 論	83
参考文献	89



序論

이제 祖國分斷의 4半世紀가 지난 오늘날 本来 그와 같은 分斷을 강요했던 諸要因들이 점차 변화하고 있음은 周知의 사실이다. 물론 그와 같은 要因들이變化하고 있다는 事実이 分斷狀況에 어떤 새로운 变化를 요구하고 있기는 하나 分斷을 統一로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을 의미 하자는 않는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韓半島에 새로운 分斷狀況을 제기시킨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側面에서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로 國際政治上에 있어서의 「이데올로기」的 構造의 变質을 지적할 수 있다.

돌이켜 보면 韓半島의 分斷은 戰後에 첨 예화된 「이데올로기」的兩極構造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36년간의 日帝 殖民地에서 解放을 맞아 統一된 主權國家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이전에 占領軍으로 韓半島에 진주한 美軍과 蘇聯軍을 중심으로 韩半島는 美·蘇中心의兩極構造를 바탕으로 한 冷戰体制속에 吸收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南北間에는 서로相反되는 体制를 갖게 되었고 同族間의相反된 体制下에서 계속 繁張高潮를 경험하게 되었다. 더우기 美·蘇兩陣營의 冷戰分界線으로서 韩半島는 南北間의 分斷된 狀況에서 陣營間의 对立과 갈등의 橋頭堡가 되어 왔다.

그러나 그와 같은 陣營間의 对立과 「이데올로기」의 排他性은 그 이상 더 國際政治上에서의 國家行動의 公式이 될 수 없었다.

이미 「유고」와 蘇聯間의 不和로 시작된 共產陣營內의 分裂의 可能性은 1950年代 후반에 이르러 中·蘇紛爭의 激化로 그 主軸이 동요되기에 이르렀고 소위 東歐圈의 自由化가 論議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中共의 対蘇 修正主義 非難은 共產世界의 「이데올로기」의 一元性에 금이 가게 하였으며, 世界共產主義運動은 团結力を 잃게 되었다.

이와 같이 「이데올로기」의 一元的 排他的 適用이 불가능하게 되고 劇一的 純粹性 대신에 「이데올로기」의 多意性이 강조됨에 따라 共產主義는 世界 労動階級의 결속수단으로 이용되기 보다는 오히려 個別國家의 國家利益을 合理化시켜주는 수단으로 使用되게 되었다. 이는 一元的 國際主義를 표방하는 共產主義에 대한 새로운 民族主義的 도전으로, 그리고 「이데올로기」의 名分에 대한 國家利益의 도전으로 國際關係의 多極化를 가능하게 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한편 「블럭」의 解體過程은 西方世界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났다. 즉 「프랑스」의 「드플」体制가 「偉大한 프랑스」를 내걸고, 独自路線을 걸어 온 이래, 対共体制의 团結을 중심으로 했던 西方体制도 점차 1950年代와 1960年代에 이르러 多極성을 露呈하게 되었다.

이러한 陣營內의 解體過程은 陣營間의 関係를 촉진시켰으며, 드디어 東西陣營의 「데땅뜨」時代로까지 發展하였다. 東歐諸國의 対西方世界에 대한 接近과 西歐의 和解政策, 특히 「브란트」의 東方政策등은 「이데올로기」의 排他性이 國際政治의 行動原理로 적용될

수 있던 時代가 지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國際政治의 「이데올로기」의 構造의 變質은 결국 政治的 多極性 (Political Multipolarity)을 가져왔다. 이는 한마디로 말해서 종래 美・蘇中心의 兩極体制가 적어도 中共과 日本 및 西歐의 登場으로 多極体制로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아직도 核戰力上에 있어서는 美・蘇中心의 兩極体制가 인정되고 있다 할지라도 政治的 으로는 國際社會의 行動者가 增加하여 兩極体制에서 있었던 美・蘇의 專斷的 行為도 어떤 制約를 받을 수 있는 國際政治의 複合的 構造가 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國際政治의 變化는 戰後 同盟体制에 대한 變質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으며 특히 分斷國家를 포함한 戰後問題處理를 제기시키고 있다. 흔히 國際政治上에서 衝擊波로 알려지고 있는 최근의 일련의 事態들, 예를 들면 「닉슨」 美大統領의 中共 蘇聯訪問, 東西獨關係의 改善, 西獨과 蘇聯間의 不可侵條約 締結등은 이미 變化된 國際關係를 반영하고 있는 事件들이다.

이로 부터 韓半島問題는 어떤 變化 可能성을 내포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적어도 分斷을 가져 왔던 國際政治의 冷戰構造가 점차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國際政治의 多極化는 韓半島에 대한 強大國들의 利害關係를 한층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으며, 또한 東西兩陣營間의 和解「무드」 속에서 韓半島問題는 새로운 解決을 모색하는 方向으로 進展되고 있다. 이것 은 韓半島 分斷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 들여질 수 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變化속에는 統一에 대한 肯定的 要因도

있지만 그와 반대로 否定的 要因도 내포되고 있기 때문이다.

冷戰의 解消가 緊張을 緩和시킬 수는 있을지라도 그것이 곧 統一로 접근될 수는 없으며, 오히려 統一自體에 대한 새로운 意味를 부여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民族共存」이라는 새로운 生存方式을 가능케 할 것이며, 이로 부터 「民族的 同質性의 保存」가 重要한 課題로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國際政治狀況에서 「平和共存原則」의 適用을 지적할 수 있다. 사실상 冷戰体制를 和解構造로 전환시키는데 있어서는 「共存原則」이 크게 作用하였다. 東西兩陣營의 対立과 갈등속에서 美蘇間의 平和共存의 論理가 不可避하게 받아들여지게 됨으로써 世界政治는 새로운 樣相으로 진전될 수 있었다.

核時代에 살고 있는 現代人們에게 両次의 世界大戰과 같은 戰爭은 人類의 共滅을 가져올 뿐이라는 自覺을 갖게 되었으며, 이와 같은 核에 대한 공포는 平和를 위한 世界政治의 公式으로 共存原則을 낳게 하였다.

이로 부터 世界政治는 東西間의 冷戰的 対立으로부터 「데탕트」의 時代로 접어 들게 되었으며, 緊張緩和를 중요한 外交的 行動原理로 받아 들이게 되었다. 또한 緊張緩和의 行動原理는 戰後冷戰体制에 대한 根本的 變化보다도 現狀維持를 모색하는 方向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새로운 構造的 變質(政治的 多極性)을 現實로 받아 들이면서도 紛爭問題에 대한 総括的 解決을 피하고 漸進的인 安定化의 길을 抨하고 있다고 보겠다. 그것은 實質的으로 現狀

維持의 制度化를 다짐하는 方向으로 集約되고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國際政治上에 있어서 国家間의 双務的이며, 本質的으로 排他性 또는 閉鎖性을 지녔던 同盟秩序가 점차 崩壞되고, 그대신 普遍的이고 開放的인 協商構造(交流狀況)가 점차 世界平和를 維持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다시 말해서 核時代下에서의 軍備가 多元化되고 갈등의 위험이 全體人類를 파멸시킬 수 있는 現代世界에서 緊張을 종식시키기 위한 새로운 方法으로서 協商이 有用한 外交戰略上의 地位를 차지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共存論理는 東西兩陣營間에 肯定的 関係가 設定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 哲學的 根拠를 제공했다. 그리고 共存形態는 美·蘇를 主軸으로 했던 陣營對陣營間의 共存뿐만 아니라 國家對國家의 共存; 나아가서는 分斷된 國家들에 있어서의 民族共存의 形態로 까지 發展하였다.

最近에 이르러 東西獨間의 緊張緩和와 関係改善은 「一民族 二國家」의 共存方式을 적용한 代表的인 例라고 하겠다.

한편 平和共存의 原則은 國際關係에 다만 核에 대한 공포로부터 個別國家들의 生存方式을 모색하는 共通된 利益을 成立시켰을 뿐만 아니라 부수적으로 緊張緩和의 政治的 脈絡속에서 參與者들이 다같이 어떤 利益을 얻게 된다는 이른 바 Non-Zero-Sum-Game 的 狀況을 제공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것은 어느 한쪽의 利益이 반드시 다른 쪽에 대해서는 그만큼 損害가 된다는 Zero-Sum-Game 的 狀況을 기본으로 했던 冷戰体制를 脱皮하게 하는 동기가 되었다.

이로부터 世界는 한층 더開放的体制를 추구하게 되었고複雜한外交樣相을 露呈하고 있다. 相互對峙나 葛藤보다도相互交流와 協商을 통해 각기 利益을 추구해 나가려고 하는 脱冷戰의 정후가 世界 도처에서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 韓半島의 狀況도例外는 아니다. 韓半島를 둘러싸고 있는局面의 國際政治는 이미 이와 같은變化된 世界秩序를 두드러지게 반영하고 있으며, 소위 強大國体制의 出發이 韓半島의 分斷狀況을 어떤 形態로든 脱冷戰의 潮流속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外的 条件이 되고 있음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글으로 統一에의 接近狀況을 고려해 볼 수 있다. 解放과 더불어 韓國은 分斷의 쓰라림을 받아들여야 했고 또한 同族間의 戰爭을 통해 南北間에는 극복하기 힘든 葛藤의 離과 不信의 이미지가深化되어 왔음이 事実이다. 그 위에 國際的 「이데올로기」의 対立과 葛藤이 韓民族의 異質化를促進시켜 왔다.

이로 부터 南北雙方은 서로 다른理念과体制 및 制度를 확립시키는데 專念할 수 밖에 없었으며, 統一國家의 實現은 더욱 어려운 課題로 될 수 밖에 없었다. 그의 實現은一方의 他方에 대한 軍事的 攻擊이나 頽覆活動이라는 두가지의 典型的인 方法을 사용하는 것으로 점철되어 왔다. 따라서 南北間의 계속적인 軍事的 「에스컬레이션」은 불가피하였으며, 緊張은 더욱 高潮된 채 双方間의 날카로운 対峙만이 唯一한 安全戰略으로 적용되었다.

그러나 最近에 이르러 対外的 狀況의 變化 이외에도 緊張高潮는 逆說的으로 緊張緩和를 가져 오는 条件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南北關係의 새로운局面이 展開될 수 있었음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이것은 南北間의 그 이상의 对立과 相剋이 각기 자신들 스스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벅찬 많은 代價를 지불해야 한다는極限狀況에 처하게 될 경우 이에 대한 解決方法으로 「緊張緩和」의 共存關係를 제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어느 의미에서 이러한 現象은 「便宜의 原則」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不安의 요인으로 作用할 수도 있다. 비록 東西陣營의 強大国間에는 直接衝突 回避의 競爭的 共存關係가 定着되다시피하고 있다 할지라도 아직도 紛爭地域에서의 平和威脅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에서 緊張緩和의 限界性은 立証될 수 있다.

여하튼 世界情勢의 變化와 더불어 韓半島의 内外狀況도 새로운局面으로 접어들고 있음은 명백하다. 그와 같은局面展開가 南北間에 각기 상이한 意味로 해석되거나 혹은 不適合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더라도 근래에 일어난 事態進展들은 확실히 韓半島의 分斷狀況에 대한 變化를 반영하고 있다. 이미 우리 政府는 1970년 「8·15宣言」에서부터 始作하여 1971년 南北赤十字社를 통한 「離散家族 찾기運動」의 提案, 그리고 「7·4南北共同聲明」 및 「6·23宣言」에 이르기까지 漸進的이고 段階的으로 南北關係를改善하여統一에의 現實的 接近方法을 제시해 왔다. 이와 같은 提案과 實際的인 南北往來, 그리고 對話와 접촉등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南北間의 斷絕狀態에서 南北双方間에 意思疏通의 機회를 가질 수 있었고, 또 이를 통해 民族의 同質性을 시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커다란 意義를 찾아 볼 수 있다.

그리고 南北間에 制限된 部門에서지만 상호접촉과 交流의 경험을 가질 수 있었고, 또 앞으로도 그러한 可能性을 모색할 수 있다는 自信과 機会를 증대시켜 놓았다는 점에서, 다시 말하면 南北關係의 伸縮性을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價值를 갖는다고 보겠다.

더욱 重要한 것은 統一方式에 대한 새로운 接近方法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즉 그것은 당장 全面的인 統一을 추구하는 絶對的 接近方法의 非現實性을 배제하고 여러가지 中間的 段階를 거쳐 統一이 가능하다는 融通性 있는 方式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종래의 統一論과는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 方法은 理論的으로 統一을 過程으로서 파악하려는 것으로, 統合 (Integration) 을 통한 一国形成方式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過程으로서의 統一은 双方間의 積極的 相互作用 (Positive Interaction) 이 날로 활발해 질 것을 전제로 한다. 이와 같은 相互作用으로는 交流 (Exchange) 와 協力 (Cooperation) 을 생각할 수 있다. 여기서 交流라 함은 物的 人的 및 情報가 交換되는 것을 말하며, 協力이라 함은 이와 같은 交流가 双方間의 共同機關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双方間에는 자기 혼자만의 能力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며 第極的으로는 分斷된 狀況에서 民族의 同質性을 維持 發展시킬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統一에의 接近過程에서 南北 双方間의 交流가 갖는 의미가 크다고 할 때 이를 實現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問題点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로 交流의 内容이다. 즉 双方間에 무엇을 交流할 것인가를

案出해 내는 問題가 미리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具体的으로 말하면 交流의 性格과 対象을 決定하는 것으로 이 問題에 관해 双方間에 어떤 合意圈이 形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 다음으로는 어떻게 交流를 進行시킬 것인가 하는 交流의 方法 (How) 을 생각할 수 있다. 交流方法은 實質的으로 相互間에 누적되어 온 不信과 不安의 「이미지」를 불식시키는 通路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窮極的으로 交流의 効果를 極大化시킬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比重을 차지한다.

이를 위해서는 高度의 交流戰略이 강구되어야 하며, 双方間에 수용될 수 있는 基本原則이 確立되어야 한다. 본래 交流나 이를 위한 協商過程은 絶對主義的 價値觀보다는 相對主義 原則에서 出發하는 것이며, 실제로 交流進行方式이나 節次上에서 葛藤과 調和의 두 가지侧面이 동시에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끝으로 고려되어야 할 問題는 交流狀況이다. 다시 말하면 交流를 계속 유지시키고 또 어떤 効果的인 結果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狀況 (Situation) 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交流가 가능한 狀況은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不可避한 狀況으로 双方間에 交流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客觀的 조건이 구비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狀況은 일반적으로 國際政治的 變化를 포함한다. 韓半島에 있어서는 南北間에 不可避하게 交流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狀況出現이 있게 될 경우를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다.

또 다른 하나는 交流를 통해서 南北間에 다같이 利益을 얻을 수 있는 主觀的 狀況을 들 수 있다. 이 狀況은 双方間에 날카로운 對峙보다는 交流를 통해 緊張을 缓和시키고 民族의 同質性을 維持함으로써 經濟的 側面에서나 非經濟的 側面에서 어떤 共通된 利害關係를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어떠한 경우든 交流가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狀況條件이 充足되어져야 할 것이다.

만약 두가지 狀況條件이 合致될 때 交流는 쉽사리 이루어질 수 있게 되며, 그렇지 않고 어느 한가지 狀況만이 出現하게 될 때에는 交流는 상당히 不安定한 過程으로 진행될 것이다.

本稿에서는 주로 이와 같은 문제점을 염두에 두고 지금까지 세시되어 온 社會文化 交流部門에 관계된 諸方案들을 綜合하면서 이의 實現을 위한 戰略的 側面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第1章 統一と交流

第 1 章 統一과 交流

第 1 節 統一政 策

오랫동안 共同의 歷史를 경험해 온 過程에서 韓國은 強力한 文化的 同質性을 지속시켜 왔으며, 강인한 生存力を 유지해 왔다. 그러나 西歐의 科學文明이 全世界的으로 弹창되어가던 帝國主義的 물결 속에서 韩國은 문호를 개방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따라서 새로운 文明의 충격을 받지 않으면 안되었다.

1866년에는 「프랑스」軍艦 7隻이, 그리고 1871년에는 美國軍艦 5척이 韩國에 나타나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건들을 들어 補償을 要求함과 동시에 開港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要求는 당시 李氏王朝의 拒否로써 쉽게 물리칠 수 있었다. 그 뒤를 이어 일찌기 자신의 문호를 개방하고 西方의 文物를 받아들여 開化의 길을 걷고 있던 日本이 韩國에 대한 門戶開放과 아울러 日本 자신이 西方으로부터 강요받은 要求와 그 方式을 그대로 韩國에 대해 적용했다. 日本人들은 1875년 운양호 사건에 대한 배상을 要求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점차로 貿易權과 治外法權등 여러 가지 特權을 얻어 내었으며 마침내 1910년 韩國을 植民地로統治하기에 이르렀다. 1945년 8월 15일 日本이 패망하기까지 韩國은 오랫동안 日帝의 植民地統治를 겪게 되었고 이로부터 单一民族의 文化的 伝統性은 異質文明의 충격에 의해 침식될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李氏王朝의 位階的, 権威主義的인統治에서 형성될 수 있었

던 支配体制의 单一的 合意圈은 여러가지 外勢의 영향을 받아 분열을 노정하게 되었다. 이것은 植民地 支配에 대한 民族的 抵抗運動을 전개하는 과정에서도 나타났다.

사실상 韓國은 日帝의 植民地 抵抗運動에서도 統一된 「리더십」과 조직체를 형성시키지 못하였으며 그중에서도 國際 共產主義 운동은 韓民族 内部의 分裂의 씨를 뿐만 근원이 될 수 있었다. 이와같은 狀況下에서 日本의 敗戰은 韓半島에 두개의 外部勢力を 끌어들이고 말았다. 즉 日本軍은 미리 마련된 約定에 따라 3.8線 以北에서는 蘇聯에, 그리고 그 以南에서는 美國에 대해 각기降服하는 형식을 취했다. 蘇聯은 対日 參戰의 代價로 北韓地域에 대해 日本으로부터降服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이로부터 韓半島의 分斷은 시작 되었다. 마침내 韩半島에는 두개의 政治的 実体가 나타나게 되었고 쌍방간의 대립과 갈등은 심화되었다. 더욱이 國際政治의 兩極化構造는 韩半島의 分斷을 한층 더 견고히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6.25 戰爭은 민족분단의 장벽을 한층 더 두텁게 만들었다.

이와같은 分斷政策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은 구체적으로 南北双方에 있어서 統一政策으로 집약되었다. 南北雙方은 각기 統一을 배타적인 目的으로 설정했다.

우선 韩國의立場에서 볼 때 統一政策은 상당한變化를 보여 왔다. 초기 李承晚 政府下에서는 北進統一論으로 일관되었다. 그리고 北韓과의 어떠한 협상도 상당히 의심스럽게 받아들여졌으며, 소위 平和統一이란것은 선전적인 효과로서만 사용되었을 뿐이다. 이와같은 統

一政策은 非融通의 이고 好戰的인 態度로 보였으며, 어떤 측면에서는 이와 같은 政策은 1947년 이래 「유엔」에서 국제적으로 승인된 韓國政府의 正統的 地位에 기초하였던 것이다.

1960年에 自由党 政權이 봉파되자 韓國의 統一政策은 즉각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즉 統一을 성취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한다는 종래의 武力北進統一 政策은 배제되었으며 平和的 手段에 의한 南北統一論이 대두되었다. 동시에 南北韓 同時選舉를 요구하는 「제네바」 提案이 韓國의 公式的인 統一政策으로 다시 제기되었다.

이것은 당시 韩國社会에서 팽배하게 일어난 平和統一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을 포함해서 政治活動의 自由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후 제3공화국에 들어서서는 統一政策에 대한 융통성 있는 자세를 보였다. 처음에는 反共을 国是의 第一로 규정하고 統一을 위해 공산주의자들과 대결하기 위한 예비조치로서 韩國의 軍事力 증강을 내세웠다. 한편 구체적인 통일정책으로서는 武力不使用과 南北韓에 있어서의 同時的인 「유엔」감시하의 자유선거, 그리고 토착인구비례에 따른 国회의 代表權 등을 포함해서 신축성 있는 제안을 하였다.

그러나 이 당시 南北간의 침족이나 交流 및 協商 등에 대한 제안은 사실상 억제되었다. 그러나 1960年代에 들어서서 나타나기 시작한 北韓의 平和공세와 국제정세의 변화로 말미암아 韩國은 단순히 1954년 「제네바」 제안의 되풀이 이상의 어떤 것을 統一政策으로 포함시키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격변하게 되었다. 더욱 기 「유엔」의 加盟国数가 급격히 늘어났고 따라서 「유엔」에서의 전통적인 韩國支持의 기대는 크게 줄어들게 되었다. 이미 1960년

에 「유엔」총회는 北傀가 韓國問題處理에 대한 「유엔」의 權威와 權能을 존중하고 받아 들인다면 한국문제議決에 北傀를 초청할 것을 제안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유엔」을 포함한 外對情勢의 변화속에서 韓國에서도 統一問題에 관한 論議가 점차 政策的으로나 學術的으로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마침내 統一政策에 대한 韓國政府의立場이 1970년 8月 15일朴大統領의 경축사에서 어떤 변화를 암시하였다. 소위 「8.15宣言」은 두가지 方面에서 重要하다. 하나는 緊張緩和를 통한 南北韓 統一을 제시한 것으로 統一政策이 한층 더 現実的인 基本概念에서 출발하였다는 점이다. 이것은 韓半島가 처해있는 狀況에 대한 새로운 認識이며 分斷克服을 위한 現실적인 政策選擇으로 國內外의으로 주목을 끌었다. 또 다른 하나는 北韓에 대해 平和的 競争을 提示하여 分斷을 民族共存의 次元으로 이끌 수 있는 첨진적인 統一接近方式을 암시하였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北韓으로 하여금 武力を 포기하고 經濟的, 社會的 其他 다른 영역에서 韓國과 平和的으로 경쟁할 것을 촉구한 것은 冷戰的인 威脅體系속에서 民族의 統一을 추구했던 종래의 立場과는 상당히 변화된 것임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이어 1971年 8月에 있었던 韓國赤十字社側의 離散家族찾기運動 提案과 이에 대한 北韓側의 반응은 韩半島에서 對話의 時代를 맞는 분위기를 조성시켰다. 실제로 남북간의 赤十字會談은 아직 本来의 목적을 성취시키는 데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지만 수차례 결친

予備会談과 실무자회의 및 본회담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있었던 南北間의 직접적이고 双務的인 對話는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고 보겠다. 이것은 확실히 南北關係에 있어 새로운 국면을 기록하였다. 이와 함께 1972年 7月4日 서울과 平壤에서 각기 同時に 發表된 「7.4 南北共同声明」은 南北關係에 新紀元을 이루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 성명에서 南北双方은 「統一은 外勢에 依存하거나 外勢의 干涉을 받음이 없이 自主的으로 解決」해야 하며 「武力行使에 의거하지 않고 平和的 方法으로 實踐해야 한다」는 自主的平和統一의 原則을 선언했다.

그리고 이 성명에서는 南北間의 緊張狀態의 緩和, 多方面的인 諸般交流実施, 南北赤十字会談의 支援, 서울-平양간 常設直通電話가설 등 南北關係에 있어 실질적이고 점차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7.4 共同声明」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狀況에서 韓國政府는 73年 6月23日 「平和統一 外交政策에 관한 特別声明」을 發表하여 한층 더 신축성있는 統一政策을国内外에 천명하였다. 이 성명에서 두드러진 것은 緊張緩和와 統一에 障碍가 되지 않는 조건 하에서 「유엔」을 포함한 國際機構 北韓이 加入 내지는 參与하는 것을 反對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것은 變化된 韓半島 주변정세와 統一戰略의 修正을 반영한 것으로 理論的으로 점진적인 統一接近方式을 도입한 것으로 끌어올 수 있다. 理論上 統一에의 漸進的 接近方式은 戰爭防止와 平和確保를 위한 간접적 시도로서 機能主義 理論과 緊張緩和를 실현하기 위한 戰術的側面에서의 漸進的 交換理論에 근거하고 있다. 韓國政府가 취

하고 있는 統一을 위한 漸進的 接近方法에는 다음과 같은 内容 들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 ① 비록 漸進的인 接近方法이라 할지라도 결코 政治의 次元에서의 對話나 접촉, 그리고 이들을 통한 一括妥結의 機회를 영구히 封鎖하거나 排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 ② 그 節次上에 있어 政治의 側面(權力의 要素)이 강하게 작용하는 문제보다는 非政治의 側面에서의 人道나 사회, 文化, 그리고 經濟의 領域에 있어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우선적으로妥結해 봄으로써 궁극적으로는 政治의 解決까지도 가능케 할 수 있다는 점이다.
- ③ 끝으로 國土統一이란 命題를 놓고 南北韓간의 体制의 變形이나 수렴을 전제하거나 그 과정을 長期의 目標로 삼고 漸進의 으로 이루어 나가자는 一般論을 포함한다.

사실상 1971年 8月에 있었던 南北赤十字會談 자체도 漸進의이고 部門의 問題解决을 모색하는 구체적인 사전들이었으며 1972年의 7.4 声明, 1973年的 6.23 宣言, 그리고 金溶植 外務長官의 「三段階 接近方式」 등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統一接近試驗들은 南北간의 平和의이고 善意의 競争關係를 역설함으로써 韓半島에서 緊張緩和를 통한 統一政策의 段階性과 機能主義의 側面을 내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第 2 節 交流의 意味

이와 같은 漸進의 統一接近方法에 있어 南北간의 交流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실제로 人道的 및 文化的 接触을 거쳐 非政治的接触과 政治的 接触이라는 三段階 接近方式을 원칙으로 할 때 南北間의 社会·文化的 交流는 그 첫단계로서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性格上 社会·文化的 交流는 南北間의 「커뮤니케이션」의 幅을 넓혀줄 수 있다는 점에서 南北間의 理解를 증진시킬 것이다. 이러한 理解增進은 韓半島의 緊張狀態를 완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 社会文化的 側面에서 南北交流는 南北間에 쌓였던 葛藤과 紛爭點을 해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가정에 기초한다. 戰後 冷戰體制속에 있던 東西관계를 「데탕트·무드」로 이끌 수 있었던 계기는 50年代 中葉부터 美·蘇間に 꾸준히 증진되어 온 「커뮤니케이션」에 기인하였다. 美·蘇는 몇 차례의 頂上會談을 개최했고 文化交流와 많은 종류의 技術交換을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美国과 蘇聯은 그들간의 广泛한 交流가 상호간에 특별한 利益을 준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찰스 오스굿」(Charles Osgood)이 제시한 「緊張減少를 통한 漸進的 交流」라는 理論에서 볼 때도 南北間의 社会文化的 交流는 緊張減少作動에 있어 첫 단계의 조치가 될 수 있다. 즉 긴장 감소를 위한 첫 작동은 国家安保에 대하여 주변적인 것이어야 하는데(그렇게 되어야만 相對方에게 誤解를 적게 가질 수 있게 된다) 社会文化的 交流는 바로 그와 같은 性格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交流가 계속되는 경우 相對方이 주장하는 實質的 威脅을 감소시키고 相互依存의 接合關係를 구축하는 方向으로 나아가

게 될 것이다.

물론 비록 交流가 進展되고 있다 할지라도 南北關係는 外生的인 事態發展으로 또다시 衝突過程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러한 「데 땅뜨」 初期의 沮害行為는 双方의 内外에서 나올 수 있으며 그 결과 어느 한 쪽이 그와 같은 交流行為를 무가치한 것으로 포기하게 될지도 모른다. 또한 漸進的 緊張減少의 接近方法으로서 交流는 双方이 現狀을 變更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 하나의 솔책으로 받아들여 질 것이다. 만약 交流의 두 相對者가 相互關係를 개선시키려고 하는 基本的 意志가 없다면 그 交流는 狀況을 變更시킬 수 없을 것이다.

이처럼 交流의 限界性이 内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것이 어느一方에 의해 채택되고 交換되며 또 容觀的 狀況이 유리하게 전개되는 경우 相對方에게 共同의 利益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南北間의 交流가 가져올 수 있는 두번째 効果는 그러한 것이 同一民族의 同質性을 시험할 수 있는 기회를 증대시킨다는 것이다. 伝統的으로 单一民族으로서의 共同體를 유지해왔던 韓民族이 分斷되어 두개의 異質化되는 過程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双方間에 접촉과 交流가 진행된다면 이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民族의 同質性을 증대시키는 계기로 발전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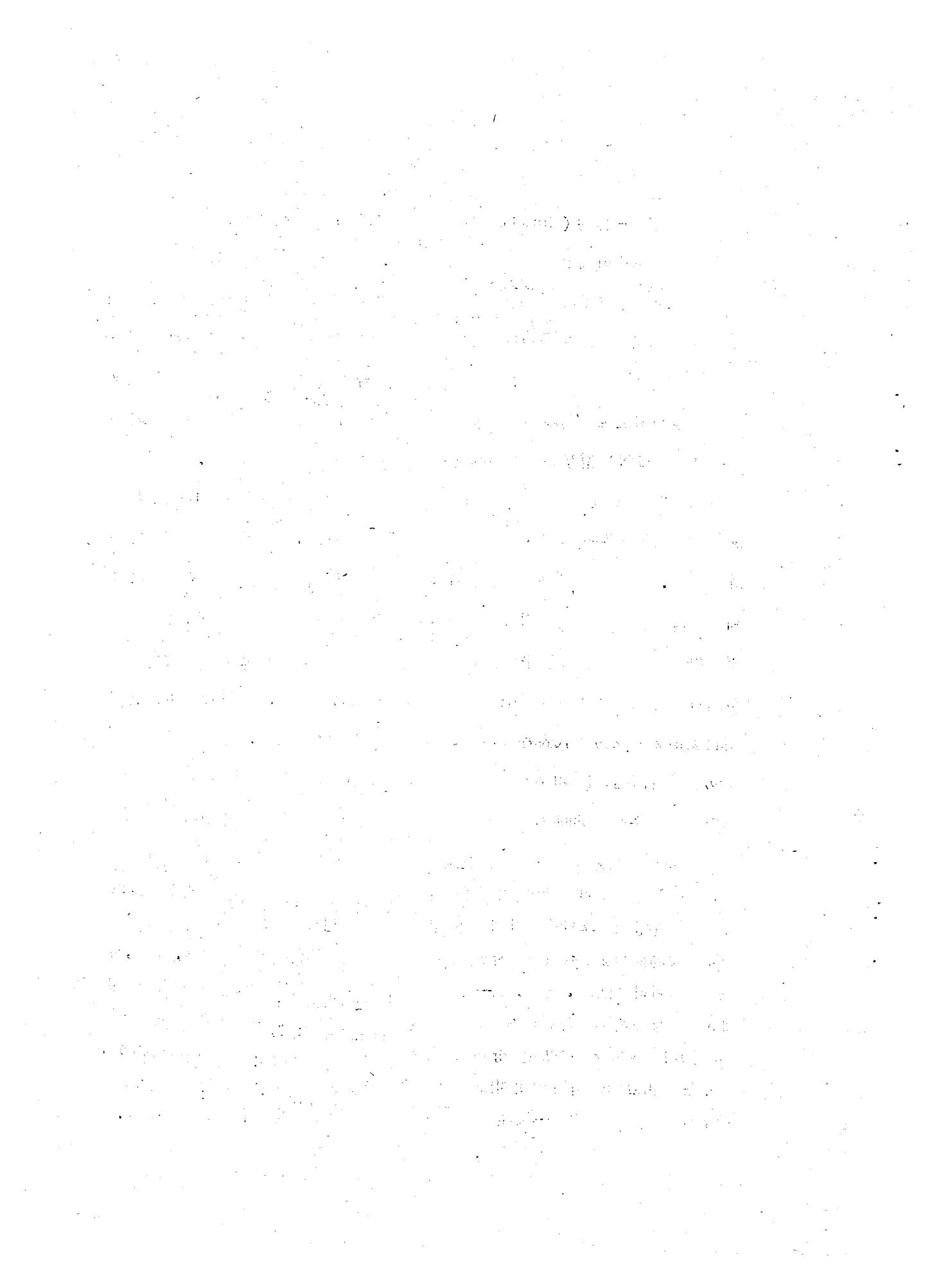
완전히 別個의 國家間의 交流하기 보다는 分斷된 单一民族간의 交流와 接触은 어떤 점에서는 不利한 측면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는 民族的 一体性 (National Identity) 을 도모하는 民族統合의 한 過程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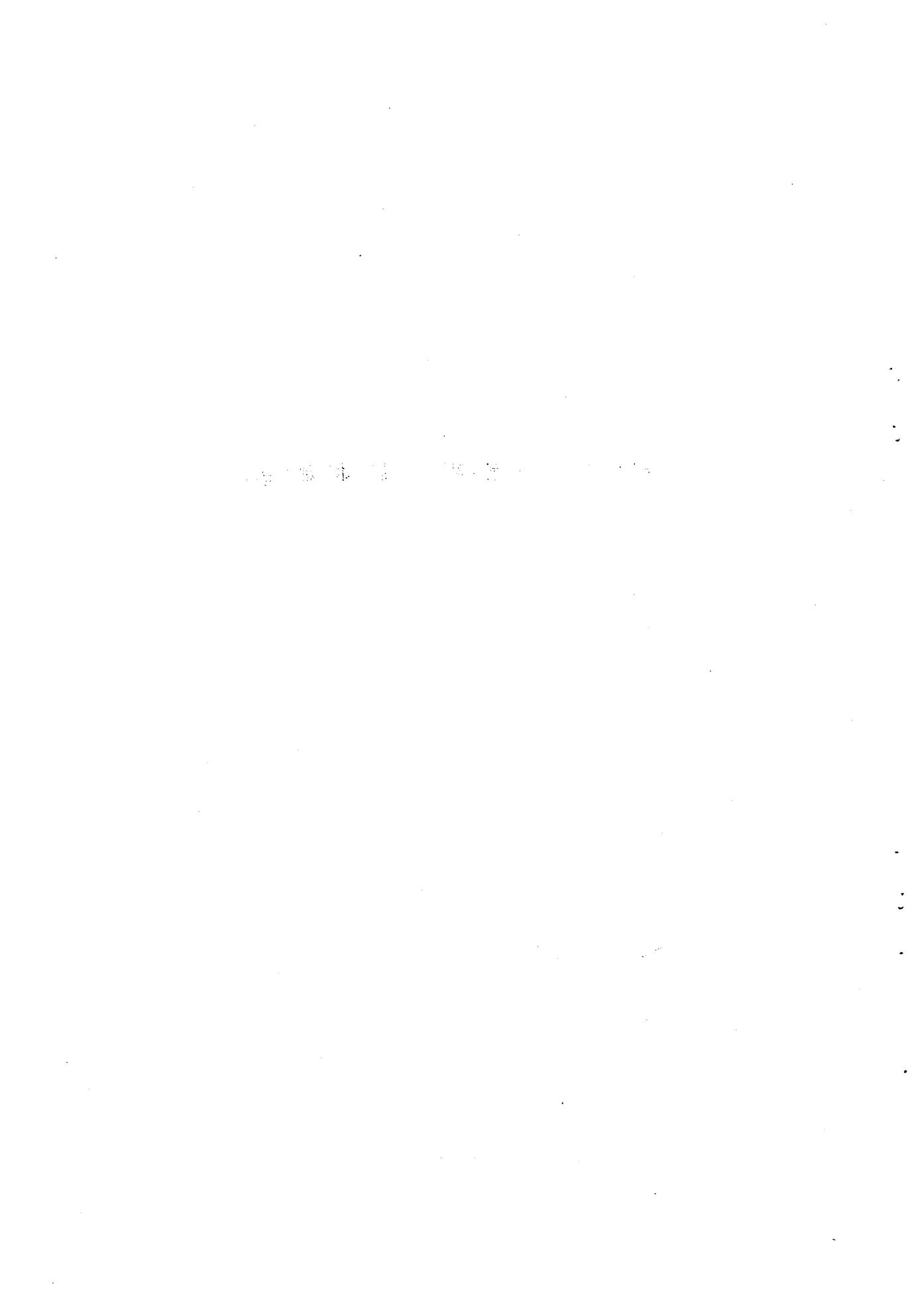
이미 7.4 共同声明을 비롯해서 南北間에 있었던 접촉과 對話속에서 도 双方間의 理念과 制度의 差異를 초월한 民族主義에 의한 統合原則이 제시된 바 있다. 이와 같은 統合原則은 당장 실현되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對話와 交流를 拡大해 난감으로서 双方간에 理解의 幅을 넓혀 相互간에 不信感을 없애는 데서 출발한다.

가령 「브르체친스키」같은 사람은 分斷國의 統一過程을 ① 對決 ② 和解와 緊張緩和 ③ 協力 ④ 再統合 등의 단계론으로 설명하고 있다. 물론 이와같은 統合의 단계론이 思弁的인 要素를 많이 내포하고 있지만 여기서 南北韓間의 交流는 우선 和解와 緊張緩和를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측면에서는 「경쟁 협력단계」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南北調節委 双方 代表者들의 연설에서 잘 나타났다.

1972年 11월 30일 서울에서 열린 南北調節委員會 共同委員長會議에서 李厚洛 서울측 共同委員長은 「南北調節委는 南北 相互間의 理解를 두터이하고 각분야에서 南北交流를 실현할 것이며 또 각 분야에서 南北이 힘을 합쳐 같이 사업을 벌쳐 나가는 등 南北간의 장벽을 깨뜨려 조국통일의 그날을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을 천명하였고, 한편 平壤측 共同委員長 代理인 朴成哲은 「우리가 南北사이에 對決, 競爭, 分裂이 아니라 団結, 合作, 統一을 이루는데 중요한 것은 不信任을 없애고 호상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임을 밝혔다. 비록 이와같은 南北間의 関係가 中斷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各 分野에 있어 南北間의 교류는 相互信賴의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고 나아가 協力段階까지 가능케 하여 民族的 一体性을 도모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第2章 交流의基本概念



第2章 交流의 基本概念

第1節 交流와 統合理論

現實的 事件에서 南北韓의 交流의 概念은 統一概念에 대한 새로 운 定立에 근거를 둔다.

이는 民族統一이라는 全體의 合一과 区別되는 機能論的 側面에서 的 民族統合 (National Integration)의 概念定立을 필요로 한다.

이와 같은 點에서 우선 統合概念에 대한 理論的 背景을 고찰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統合理論에 대한 학자들의 見解는 다양하다. 그러나 여기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두가지 側面에서 고려해 보고자 한다.

첫째로 意思疏通의 政治統合의 개념을 들 수 있다. 이 개념에서는 統合의 動因으로 意思疏通을 제기시키며 이를 통하여 統合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意思疏通의 統合을 주장한 Louis Wirth 같은 학자는 統合을 合意團形成에 바탕을 두고 合意團形成의 主要 要素로 「매스 미디아」를 들고 있다.

즉 그는 「合意團은 相互依存關係, 共同文化의 基盤, 人間傳統을 형성하는 일련의 制度 및 이들이 형성하는 규범과 기준, 그리고共同体 生活의 全體에 특별한 意味와 効用성을 부여하고 또 그社会를 결속시키며 계속해서 合意的 行動을 하게 하는 「매스 커뮤니케이숀」에 의해 유지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숀」 개념은 Karl W. Deutsch에 의해 한층

더 統合의 有用한 要素로 도입되었다.

Deutsch는 電氣工学者나 心理学者들에 의해 개발된 「커뮤니케이션 모델」을 분명히 使用하지는 않았지만 그 대신 意思疏通的 統合(Communicative Integration)이란 용어를 암시했다.

民族主義와 「커뮤니케이션」간의 관계에 대한 그의 연구는 바로 좋은例가 된다.

그에 의하면 한 民族国家의 人民(People)에 의한 共同体形成은 그들이 同和(Assimilated)되고 動員(Mobilized)된 정도에 달려 있음을 제시하였다.

즉 Deutsch는 「커뮤니케이션」過程이 社会와 文化, 個人의 個性, 그리고 共同体를 결속시키는 토대로 보고, 共同体는 그와 같은 「커뮤니케이션」의 相互補完的 習慣과 施設에 의하여 이루어 진다고 보았다.

둘째로 機能的 統合概念이 人類學이나 社会學의 發展과 더불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社会學의 意味에서 機能的 統合이란 專門化된 사회의 여러 部門이 사회의 발전과정에 계속 존속하여 社会体系에 적극적인 보탬이 될 때 이루되는 統合을 뜻한다.

이에 대한 綜合的 分析을 시도한 사람이 또한 Karl W. Deutsch로서 그는 統合研究에 소위 「파슨스」(T. Parsons)의 機能的 必須条件인 ① 様態維持 ② 統合 ③ 目標達成 ④ 適應 등의 기능 개념을 적용하였다.

K.W.Deutsch 이외에도 Alvin W. Gouldner 같은 사람은 機能的

統合理論에 交互作用 (Reciprocity) 理論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民族統合은 政治的 單一体制의 실현을 의미한다고 보다는 非政治的 脱「아래울로기」의인 各分野에서의 南北간의 接触과 交流 및 協同体制를 구현하는 점진적, 단계적 개념임을 알 수 있다.

漸進的 統合概念에 있어서는 소위 収斂論 (Convergence Theory) 과 離散論 (Divergence Theory) 이 대두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収斂論은 現代社會에서 技術文明이 高度로 발달하는 경우 비록 相異한 理念과 体制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들간의 對立은 점차 解消되어 새로운 次元의 統合이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共產主義 社會에서 技術이 고도로 발달하여 大量生產과 大衆消費社會로 变遷하면서開放的 自由經濟体制를 受容하게 될 때, 또한 資本主義 社會에서도 社會保障과 分配의 均衡이 어느 정도 실현되어 社會的 同質化를 기하게 될 때 두 体制는 어떤 次元에서 統合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離散論은 高度의 技術文明이 分配의 問題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또한 技術이 資本家의支配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共產主義 社會의 計劃經濟는 資本主義 社會의 經濟計劃과 끝까지 결합될 수 없으며 이를 사회간에 世界觀, 歷史觀 등에 있어서의 合意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다만 현대사회의 環境的 特性으로부터 人間生存이나 또는 對立

의 理念과 價値의 自体存續을 위하여 소위 平和的 共存의 限界까지는 도달될 수 있다고 믿을 뿐이다. 즉 이 理論에서는 統合이란 概念은 成립될 수 없고 東西間의 接触交流는 相互打算的 戰略의 단편적 표현이며 지속적이고 發展的인 概念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交流의 概念이 漸進的 統合過程과 연결될 때 離散論은 交流의 기초가 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

결국 南北韓間의 諸交流는 단계적, 점진적 개념으로서의 機能的 統合을 모색하는 구체적인 方法이 되며 또한 그러한 노력의 成果로서 얻어지는 特定分野에서의 경험이 그 波及効果(Spillover Effect)로 해서 보다 더 高次元的인 諸問題解決의 기본「모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第2節 交流와 機能主義

근본적으로 南北韓間의 交流와 接触은 統合理論으로서의 収斂論의 立場에 기초하고 있으며 그 機構的 戰略理論으로서 機能主義의 接近法(Functional Approach)을 전제로 한다.

David Mitrany가 제시한 바 國際的 統合(International Integration), 地域的 統合(Regional Integration), 그리고 民族的 統合(National Integration)을 위한 기능주의적 접근법은相互의 紛爭이 非軍事的, 非政治的 方法에 의해 해결될 수 있으며 戰爭을 排除하고 平和를 회복하기 위한 理論으로 논리적 근거를

갖는다.

機能主義는 人間의 合理性에 기초한다. 人間은 對立보다 調和와 平和(Harmony & Peace)를 회구하며 人類의 漸進的 向上과 發展이 가능하다는 樂觀論에 機能主義의 核心的 前提를 둔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特定한 領域에서 얻은 경험은 다른 영역에서 재기되는 문제들을 解決하는데 좋은 「모델」이 되며 이러한 「모델」에 의한 성공적인 經驗과 実驗이 축적되고 拡大되어 결국에는 國際社會建設의 基盤(統合의 土台)이 된다는 波及効果를 증명시 한다.

機能主義는 4 가지 命題를 갖는다.

첫째로 기능주의에서는 権力(Power)과 福祉(Welfare)를 分離시킨다. 権力과 福祉는 다같이 人間이나 國家가 추구하는 대표적 형태의 목표이지만 기능론적 입장에서는 이들의 区別을 강력히 주장한다. 이는 非政治的 立場에서 機能主義의 接近法이 출발하고 있음을 뜻한다.

둘째로 더 나아가 기능주의에서는 政府課題들을 구체적 요소들로 分離시키며 예를 들면 군사방위의 課題(權力志向的)와 경제풍요과 제(福祉志向的)를 완전히 분리시켜 문제를 처리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와같이 分離된 영역에서 얻어진 統合的 教訓은 다시 다른 영역에 적용된다. 다시 말하면 기능적 영역의 分離는 논리적으로 지식의 轉位를 전제로 하며 그것은 어떤 한계를 갖지 않는다.

세째로 보다 더 분명한 分離가 이 政治的인 것과 기술적인 것

사이의 区分에서 나타난다.

기능주의 입장에서는 정치가의 과업과 전문가(Expert)의 과제를 분리시킨다. 이러한 区分은 실제적으로 福祉志向의 專門家의 수중에서 정치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것은 專門家에 의해 国家的 혹은 國際的 水準에서 統合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네째로 機能主義는 政治行動者들의 帳属性(Loyalties)의 分離를 전제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귀속감은 기능에 의해 창조되며 따라서 기능의 轉位는 귀속감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한다.

한 국가에 있어 귀속감의 多元性은 어떤 特定한 個人이 수행하는 다양한 기능에 의해 생겨난다.

이와 같은 가정에서 기능주의 입장에서는 帳属性이 統合을 위해 轉位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특히 민족주의의 우위성이 극복되어 국제적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機能的 - 体系的 意味에서 機能主義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내세운다 즉 기존의 필요성이 적절한 課題를 제기시키며 또한 이러한 과제는 전체적으로 어떤 관계를 발생시킨다.

국제적으로 이러한 과정은 主權國家를 초월하고 個人으로 하여금 국가로부터 분리되는 課題志向의 機関들을 무수히 창설케 하며 이로 부터 世界聯合같은 것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다.

Mitrany는 政治的 共同体를 그의 구성원들이 수행하는 機能의

총체 (Sum)로서 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성원은 共同善을 志向하고 또 이러한 것은 모두를 위한 福祉를 실현케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公式은 体系속에서 菲요성과 기능이 政治的 共同体를 형성케 하며 근본적으로 収斂論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종의 体系속에서의 機能統合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한다.

한편 交流는 기본적으로 交互作用이라는 점에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3 가지 전제조건을 가진다.

첫째로 交流는 相互依存的 또는 共生的 (Interdependent or Symbiotic) 인 作用으로一方에 대한 損失이 他方에도 똑같은 정도의 損失을 줄 정도의 相互依存關係의 成立을 전제로 한다.

둘째로 交流는 衡平均의 또는 均衡的 (Symmetric or Equitable) 인 作用으로 交互作用에서 雙方이 다같이 똑같은 利益을 얻도록 되어야 한다.

세째로 交流는 制度形成의 혹은 制度超越의 (Institution-building or Institution-transcendence) 인 作用으로 特定한 어느 一方만이 아니라 雙方이 다같이 属하는 制度를 形成하는 作用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雙方間의 交互作用에서는 무엇보다도 衡平의 原則이 가장 중요시 되어야 한다. 만약 相互間의 交流나 協力에 있어 非衡平이나 不均衡的 狀況이 존재하게 되는 경우 紛爭이 유발되며 혼히 말하는 協商的 関係나 去來的 狀況은 성립되기 곤란한 것이다.

경제적 분야에서 不平等關係의 가장 전형적인 例는 合作投資의

경우이다. 合作投資에서는 雙方 當事者간에 原料와 加工品을 교환하는데 그치지 않고 勞動力과 技術, 그리고 市場과 資本을 交換함으로써 不平等 交流를 더욱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不均衡的 交流는 當事者間의 관계를 相互隔離狀態로 진전되게 하며 일종의 垂直分業의 過程으로 넘어가게 하여 交互作用을 불안정하게 하므로 이를 막기 위해서는 水平的 分業關係를 유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分業의 基礎는 相互補完性과 規模의 經濟에 있다. 즉 비슷한 類型의 交換對象을 찾아내 상호간에 이들을 교환하여相互利益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多少間 실질적인 相互補完關係가 성립되면서도 雙方間의 交流가 衡平과 均衡이 유지될 수 있는 方向으로 계속되도록 하는 새로운 制度가 마련되도록 해야 한다.

이 이외에도 漸進的 統一接近方式이라는 점에서 交流는 极히 特定한 分野에서부터 시작하여야 하며 또한 軍事나 外交 및 財政政策 등 上部構造의in 問題보다는 사소하고 具体的인 下部構造의 問題부터 다루는 것이 有用하다.

이와 같은 機能主義의 交互作用의 接近法에서 南北韓의 交流와 接触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戰略上의 特性을 가질 수 있다.

그것은 첫째로 비교적 理念的 葛藤이나 對立과 관련이 적은 分野 다시 말하면 그와 같이 對立이 심각하게 表出되지 않는 分野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實用的 (Pragmatic) 分野에서부터 착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交流가 非政治的 分野에서 우선적으로 실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南北韓 相互間의 交流와 協力은 雙方이 똑같은 程度로 이익을 가져올 수 있으며 오히려 반대적인 경우에는 심각한 損失을 입을 수 있는 불가피한 狀況에 기초해야 한다.

세째로 비교적 交流의 波及效果가 큰 分野부터 착수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채냐하면 初步的段階에서의 交流經驗이 다음 段階에 영향을 주어 雙方間의 交流의 幅을 넓힐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機能主義의 接近法은 分離-命題 (The Separability Propositions)에 대한 否定으로부터 비판을 받는다. 이를 비판자들 (Claude, Sewell, Engle 등)은 우선 權力과 福祉는 分離될 수 없는 것이며 오히려 福祉實現은 政治的 決定의 범위내에서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한가지 기능적 맥락속에서 얻어진 경험이나 교훈도 새로운 맥락으로 쉽사리 전환될 수 없다. 그리고 政治的인 것과 기술적인 것, 정치가와 專門家間의 区分은, 문제들이 먼저 정치적 결정에 의해 技術的인 것으로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타당성을 갖지 못한다.

더우기 그들은 必要性의 충족에서부터 얻어지는 忠誠心이 국가를 무시할 정도로 分離될 수 있다는 것을 否定한다.

이러한 機能主義에 대한 비판은 전반적으로 그 接近法이 体系理論에서 재조정되어져야 함을 제기시켰다.

南北對話의 挫折狀態는 오히려 機能主義의 接近法의 限界성을 반영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特定한 政治的 變化的 局面에서나 또는 危機에서는 政治的 考慮가 다른 모든 分野에서의 고려를 一時에 扑拭시킬 수 있지만 그러한 變化的 局面이나 危機가 서서히 解消된다는 것을 전제로 할 경우 機能主義的 接近法은 有用할 수 있다.

첫째로 政治的 領域과 非政治的 領域(經濟, 社會的인 問題領域)의 分離可能性을 주장한 機能主義理論이 현실적으로 볼 때는 과장된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交流나 協力이 가능한 영역이 非政治的인 영역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을 가질 수 있다.

즉 社會, 經濟的 分野를 政治的 分野로부터 分離시킨 후 이 分野에 대한 交流는 동시에 政治的 問題를 해결하는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둘째로 機能主義에서 내세우는 經驗의 轉移 possibility도 현대 國제사회에서 紛爭의 程度가 증가한다는 점에서 비판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 平和共存体制속에서 갈등적 측면을 축소시키는 것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그러므로 機能面에서 交流나 協力의 經驗은 統合過程에서 필요로 하는 忠誠心의 移行을 촉진시키며 心理的인 側面에서 同質化過程을 걸게 하는데 기여한다.

결국 韓半島의 問題解決에 있어서는 南北韓間의 政治的 関心이나 權力이 介在된 문제영역을 中心으로한 直接的인 接近法은 현실적으로 實現성이 없는 것이라고 가정할 때 機能主義의 接近法으로서 漸進的 交流作用이 오히려 効果的인 方法이 된다고 하겠다.

第3章 社會文化交流의 範圍



第3章 社會文化 交流의 範圍

점진적 단계적 統一接近을 전제로 해 볼 때 南北간의 交流는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不可避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 중에서도 非政治的 分野에 걸친 南北간의 交流로서 社會文化交流는 機能主義的 命題에서 볼 때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比較的 社會文化交流는 双方간에 理念的 社會体制의 葛藤의 核地帶를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으며 또한 体制의 俊位性을 과도하게 부각시키는 競争的側面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南北간에 社會的 文化的 側面에서 交流를 가능케 할 수 있는 範圍는 상당히 광범할 수도 있으며 또한 모호하기도 하다. 社會 文化 자체의 本質上 어떤 範圍를 일정하게 설정하기는 매우 곤란하며 동시에 南北双方이 4 반세기 이상이나 단절된 상태에서 서로 異質的 体制속에서 지내왔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막연하지만 현재까지의 상황에서 가능한 南北交流의 양태는 ① 赤十字 会談을 中心으로 한 離散家族 찾기운동 ② 社會文化交流 ③ 經濟交流 ④ 政治会談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離散家族 찾기운동은 형식상 民間水準의 非政治的 接触이라는 점에서 有用한 交流樣態가 될 수 있다. 그러나 赤十字 会談은 어떤 점에서는 政治的 決斷을 필요로 할 가능성에 크므로 매우 고차적인 協商戰略을 요구한다.

현재로서는 어떠한 형태의 南北交流나 接触도 南北赤十字 会談의 성공적인 過程과 패턴을 전제로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접촉과 会談은 앞으로의 南北交流에 至大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社会文化交流의範疇内에서 赤十字 会談을 통한 南北接触과 交流는 배제하기로 한다. 이 会談은 현재 진행중(부분적이고 간헐적이지만)에 있으며 政治的으로 보다 더 복잡한 문제점들이 介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經濟交流에서는 ① 商品貿易 ② 原料交換 ③ 資本授受 등의 方法이 제시될 수 있으며 사실상 双方간의 共通的 関心分野가 될 수 있다.

또한 政治会談을 통한 南北韓 交流에 있어서는 軍事問題를 포함하여 統一原則등에 대한 方向定立에서부터 시작하여 具体的인 問題解決의 방향모색 등을 포함할 수 있다.

本質적으로 南北間의 經濟的・政治的 交流과 接触은 社会文化交流의範圍를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취급하지 않기로 한다.

대체로 지금까지 社会文化 分野에서 南北間의 交流가 가능한 것으로 제시되어온 바를 정리해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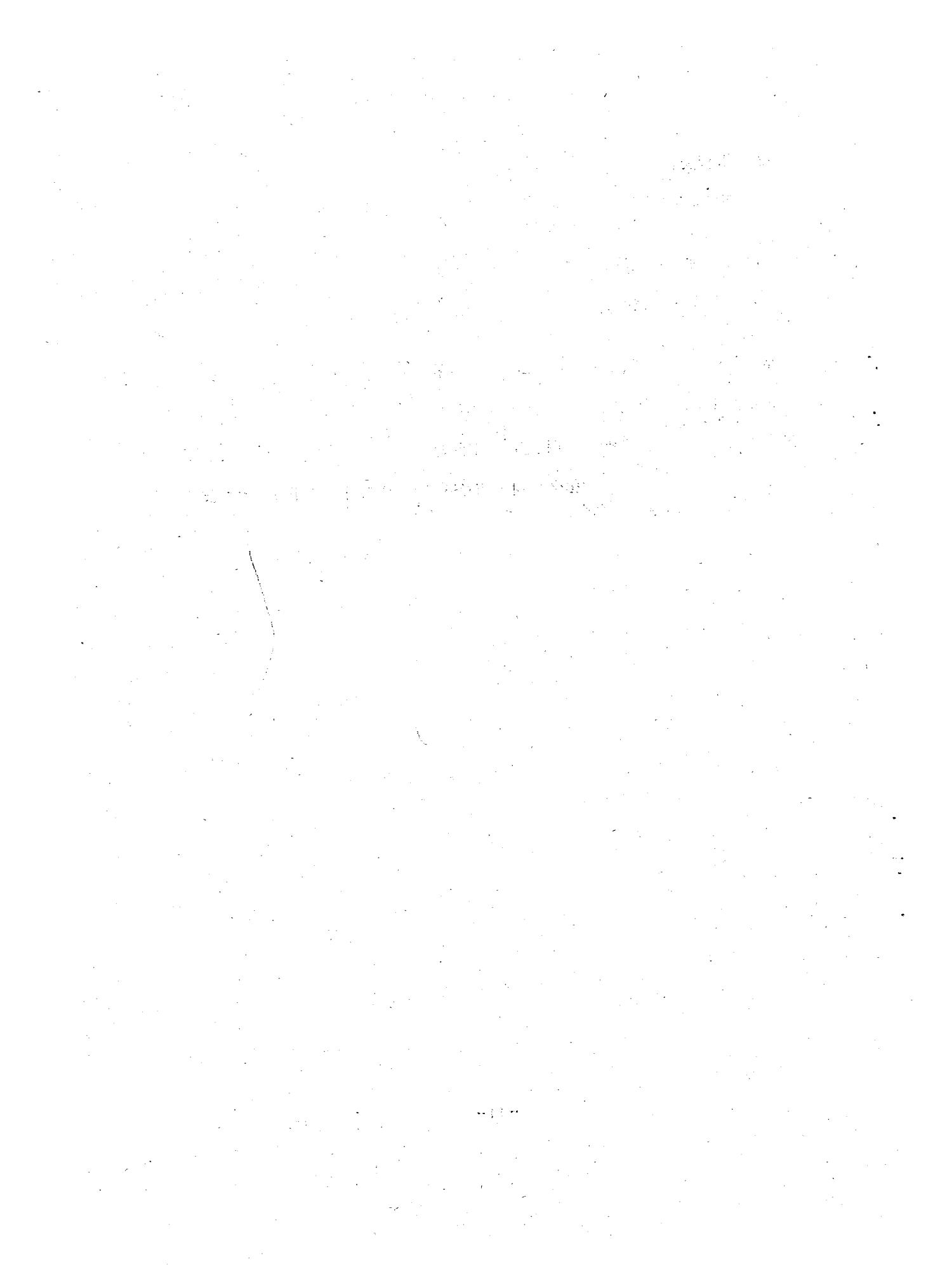
- ① 學術交流
- ② 民俗芸術交流
- ③ 宗教人 接触
- ④ 觀光交流
- ⑤ 通信 書信交流

⑥ 体育交流

⑦ 社会 团体의 交流

이와 같은 交流分野들은 어떤 順位性을 갖는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社会的・文化的範疇에서 고려될 수 있는 内容들로서 규정할 수 있다.

물론 이들 중에는 部分的으로 政治的 接触이나 經濟的 交流와 밀접히 연관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原則的으로 非政治的이고 또한 機能主義的 接近을 허용할 수 있는 分野들이라는 점에서 포괄적으로 社会文化交流에 포함시켜 검토해 보기로 한다.



第4章 社會文化交流의 諸分野

第4章 社會文化交流의 諸分野

第1節 学術交流

南北韓間의 学術交流는 우선 세가지 部分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①歴史学 ②言語学 ③考古学 分野이다.

〈歴史学 分野〉

가) 北韓에서의 歴史学

北韓에서의 모든 学術研究는 勞動黨의 統率下에 있다. 歴史学은 社会科学院의 歴史研究所에 속해 있다. 歴史学은 다른 学問分野에 있어서처럼 唯物論 또는 史的唯物論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政治的 「이 대을로기」에 봉사하는 것을 最高의 目標로 하고 있다. 金錫亭은 그의 著書 「初期 朝日關係研究」에서 「學問을 政治로부터 獨립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日帝의 所產이며, 유감된 일이다」라고 하여 学問의 政治性을 강조하였다.

北韓에서의 史觀은 원칙적으로 唯物史觀에 입각하고 있으며 歴史를 계급투쟁의 歴史로 해석하고 歴史에 있어서의 모든 事象을 이와 같은 公式에 맞추려고 한다. 이러한 점에서 歴史는 物質的 生産과 精神的 意志의 相關關係에서 발전하는 것이라는 立場과 대치된다. 現代歴史学研究에서는 近代科学으로서 實証的 論理에 따라서 어디까지나 歸納的 方法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歴史의 事実을 어떤 思想的 公式의 틀에 맞추어 해석하려고 한다는 것은 非現実

的 方法이다.

解放後 北한의 歷史學은 크게 發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
려져 있으며, 다만 考古學分野에서 貴重한 資料를 갖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北韓에서 새로이 發見된 고고학 자료들은 한국의 先史時代文化에
직접 연관되는 것으로 고고학연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이는 북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의 일이다. 즉 북한의 고고학연구도
南韓의 새로운 資料를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歷史學研究에 있어 南北間의 共同研究 또는 共同
調查가 행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으며 그와 같은
영역들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제기할 수 있다.

나) 歷史學의 交流 内容

① 広開土王陵碑

歴史學研究와 해석의 基本原理, 目標 및 方法에 있어 상
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共同研究나 調查를 행할 수 있
는 領域은 극히 限定되어 있다고 하겠다. 그 중에서도 現在 滿
洲鮮卑 通溝에 있는 高句麗의 広開土王陵碑는 雙方간의 역사학
자료로서 귀중한 가치를 가질 수 있다. 이 碑에는 고구려의 역사
뿐만 아니라 고구려와 신라, 백제; 加耶 및 倭와의 関係등이 기록
되어 있어 三國時代의 史料로서 매우 중요하다.

이 碑文內容은 대체로 3 단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前段은
고구려 시조 鄭牟王의 伝說이 기록되어 있고 中段은 広開土王의 偉業,
주로 領土擴張을 위한 戰爭記錄이 있으며 後段에는 王의 陵基의

守護人에 관한 規定을 기록하였다. 이 碑文에서 問題視되는 것은 中段의 戰爭記錄中, 특히 委에 관련된 部分이다. 이 部門에 관해 북한의 史家중에는 添法을 종래와 달리 하여 다른 측면에서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고 최근에는 朝総聯系의 교포학자중 이 비문을 日本人이 造作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전자의 경우로 朴時亨의 「広開土王陵碑」(社会科学出版社, 1966)와 金錫亨의 「初期朝日關係研究」등이 있고 후자의 경우는 李進熙의 「広開土王陵碑の研究」(日本, 吉州 弘文館, 1973)이다.

② 任那問題: 이 문제도 많은 의문점을 내포하고 있다.

金錫亨은 그의 著書 「三韓三国의 日本列島內 分國에 대하여」(歴史科学, 1963-)에서 日本列島내에 三韓三国의 分國이 있었으며 日本書記의記事에서 委가 侵略支配하였다고 하는 신라 백제 加耶등은 실제로는 日本列島내에 있는 신라 백제 加耶등의 分國을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金錫亨은 후에 발간된 그의 著書 「初期朝日關係研究」에서 日本書記에서 任那에 日本의 官家(미야께)를 두어 지배하였다는 그 任那是 日本列島 西部에 있다 고 보았다.

본래 任那란 広開土王陵碑의 十年 庚子條의記事중에 포함된 것이 가장 오래된 것이다.

사실상 日本書記의記事는 日本이 서기 369년부터 562년에 이르는 거의 200년동안 南韓을支配하였던 것처럼 과장하였으며 이러한 기록에 근거하여 日本의 御用学者들은 近世의 対韓支配를合理化시키기 위하여 古代의 任那經營說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日本書記의記事에 대한 반박으로 北韓은 広開土王陵碑文에 대한 해석을 제기하였으며, 또한 日本書記에 나타난 任那뿐만 아니라 백제, 신라까지도 日本列島內에 있던 三国의 分國이라는 주장을 내세웠던 것이다. 이로부터 우리의 입장은 歷史學의 客觀性을 바탕으로 広開土王陵碑文을 검토하고 日本書記의 南北關係記事를 비판하여 그와 같은 기록들이 결코 日本의 韓國征服을 정당화시키는 것이 아님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南北間의 學術交流와 접촉은 시도될 수 있다고 보겠다.

〈考古学 分野〉

가) 北韓에서의 考古学

北韓에서는 해방후 많은 유적 유물들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先史文化에 관계되는 考古学的 資料가 많이 발견된 것으로 보인다. 그중에는 대단히 귀중한 史料들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史料들은 南韓의 考古学的 研究에도 대단히 진요한 것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나) 考古学의 交流内容

해방후 北韓에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유적 유물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 ① 咸鏡北道 雄基 屈浦里 西浦項에서 발견된 旧石器時代의 유물 (青銅器文化層, 新石器文化層 아래에서 旧石器가 발견됨)
- ② 黃海道 凤山郡 智塔里 유적, 平安南道 温泉郡 弓山유적, 平安北道 塵邊郡 細作里 遺蹟, 平安北道 枇榔郡 城東里 龍川古邑 城跡, 咸鏡北道 鏡城郡 農圃洞 遺蹟 등 新石器時代의 유적.

- ③ 黃海道 松林市 石灘里 유적, 黃州郡 沈村里 유적, 凤山郡, 新興洞 유적등에서 발견된 無文土器 初期의 팽이그릇土器등 青銅器時代의 유물 유적
- ④ 1958년 平壤市 貞柏里에서 발견된 土括基
- ⑤ 1961년 平壤市 貞柏里에서 발견된 細形銅劍등 銅器
- 이 외에도 특히 青銅器時代의 중요한 유물 유적들이 많이 발견되어 青銅器文化의 研究에 큰 진전을 볼 수 있게 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와 같은 歷史学과 考古学 分野에 있어서의 南北交流는 韓國의 单一民族文化에 대한 연구를 촉진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民族的 一体性을 재인식케 하는데 커다란 意義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言語学 分野〉

가) 北韓에서의 言語学

学术交流가 가능한 分野중 歷史学이나 考古학 이외에 言語学分野를 들 수 있다. 分斷으로 인해 韓國은 单一民族으로서 그 歷史와 言語를 하나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国語에 대한 연구는 상호간 아무런 소통이나 정보의 교환없이 이루어져 왔다.

北韓에서의 言語研究는 言語의 社会的 機能을 소위 그들이 말하는 社会主義建設과 직결시켜 言語의 人民性을 높이는 문제에 집중하였으며, 이는 언어의 규범화 노력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党과 内閣에서는 言語의 規範化를 위한 대중투쟁을 전개시켰으며, 구체적인 작업도 하였다. 1948년 北韓에서는 「조선어문법」과 「조선말 사전」을 발간하여 철자법, 표기법, 틱어쓰기, 구두법, 표준

발음법 등을 제정하였다.

北韓에서 실시되어 온 言語의 規範化作業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맞춤법에 있어서는 해방후 얼마동안은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년)을 그대로 사용해 오다가 그후 불미한 점을 발견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1954년 과학원에서 「조선어 철자법」으로 발간하였다. 그뒤 1966년에 「조선어 철자법」을 더 정리하여 「조선말 규범집」을 내어 사용하고 있다.

② 표준발음법에 있어서는 1966년 발간된 「조선말 규범집」에서 따로 한 章을 세워 그 규법을 정하였다.

③ 外來語表記法에 있어서는 「朝鮮語学会」에서 1940년에 「外來語表記法統一案」을 쓰다가 좀더 실천성있는 규법을 갖기 위해 1956년 「조선어 외래어표기법」을 작성 사용하다가 1958년에 다시 「외래어표기법」을 발표하였다.

④ 辞典편찬에 있어서는 1948년 「조선말사전」을 발간하려고 결정하였으나 6·25동란으로 중단되어 그후 1956년에 科学院 言語文学研究所 辞典研究室에서 「朝鮮語 小事典」을 발간하고 이어 1960년부터 「조선말사전」을 발간하기 시작하여 1962년 6권까지 완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⑤ 규범문법편찬에 있어서는 1949년에 「조선어문연구회」의 명의로 「조선어문법」을 편찬하였고 1960년에는 「조선어문법」이 나왔다. 이어 1963년에 科学院言語文学研究所에서 속편으로 「조선어문법 2」를 발행하였다. 이 밖에 「현대조선어 2」등이 나왔다.

⑥ 漢字 폐지에 있어서는 書寫生活의 大衆化를 위해 漢字 使用을 전면적으로 폐지토록 하였으며 1949년에 이르러 전반적인 출판물에서 漢字 사용을 완전히 폐지하였다. 그대신 고전을 위한 전문가를 따로 두어 여기서 한문을 연구토록 하고 있다.

⑦ 학술 기술용어查定에 있어서는 1949년 2월에 「학술용어 사정위원회」를 조직하고 과학자, 기술자, 언어학자들을 망라하여 각 전문분야별로 40여개의 分科委員會를 조직하고 그 통일안을 차례로 발표하고 있다.

특히 北韓에서는 言語의 규범화를 위한 노력으로 소위 「文風」 운동을 전개하였다. 실제로 위에서 열거한 여러가지 작업들도 「문화」를 위한 전체적인 작업의 일환으로 이해되며 이는 근본적으로 단순한 言語净化라기보다는 社会主義的理論에 따른 言語의 大衆化運動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운동에서는 言語實踐에 있어서의 党的立場의 반영, 혁명수행의 내용전달, 언어행위의 적응성, 언어수단의 규범성과 표현성 보장등이 포함되었다. 이론과 「문화」에 대한 이해는 북한의 言語規範化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되며 南北間의 言語研究의 交流方案을 검토하는데 있어서도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다.

言語學分野에 있어서의 南北韓交流는 간단히 말해서 지금까지 각자 쌓아놓은 研究成果業績을 서로 紹介, 交換하여 각자의 研究活動에 참고토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客觀性있는 真理探究의 자세가 수반되어야 하며, 따라서 「이데올로기」性은 될 수 있는 한 배제되어야 한다.

4) 言語学의 交流內容

南北間의 言語学分野에 있어서의 交流와 情報交換을 위한 具體的인 内容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지금까지 연구되어 온 国語学에 대한 研究成果業績에 대한 「리스트」作成 分類 및 發表
- ② 이들 目錄의 相互交換
- ③ 南北間에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著書나 論文目錄중에서 필요한 文獻들에 대한 相互交換 및 購入
- ④ 各圖書館 藏書目錄, 出版年鑑, 出版豫告등의 交換
- ⑤ 研究機關간의 交流 및 情報交換
- ⑥ 言語言學資料, 貴重文獻등의 南北韓 共同 出刊
- ⑦ 南北韓 研究者들의 직접적인 접촉과 「세미나」개최
- ⑧ 특수한 분야(方言彙집, 国語系統, 言語言學等)의 연구를 위한 共同研究 및 직접 왕래
- ⑨ 言語言研究機關의 拡大

이러한 方案들은 모두 南北韓의 國語研究의 成果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근본적으로는 연구에 참고할 자료를 제공하는데 뜻이 있는 것이다.

第 2 節 民 俗 交 流

가) 北韓에서의 民俗藝術

具体的으로 北韓에서의 民俗藝術이 그동안 어떤 内容을 가지고 어떻게 变천되어 왔는가를 정확히 알기는 힘들다. 대체로 北韓에서 民俗藝術도 共產主義 政治体制와 밀접히 연관되어 体制에 긍정적으로 維持變化 되어 왔을 가능성이 많다. 다시 말하면 民族의 伝統的 民俗藝術이 政治的 「이데올로기」性 때문에 순수하게 維持 발전되었다기 보다는 社會主義的 文化와 風習에 적합하도록 变색되었을 것이다. 北韓에서는 民俗學을 「우리 人民의 文化와 生活風習의 民族的 特性을 연구하는 歷史科學의 部門으로서 民族文化 유산의 계승발전과 새로운 社會主義的 文化的 生活風習의 生成發展을 촉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巨大한 의의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北韓의 民俗藝術이 社會主義的 文化와 生活風習으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民俗藝術이 일종의 体制的 麥革에 따라 变천되어 왔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北韓에서는 민간신앙이나 판습, 民謡說話의 口碑 伝承등에 있어서는 共產主義 社會体制에 적합하도록 变질되었으며 非生產的이고 宗教的 信仰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일체의 行使나 儀式은 금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伝統的으로 양반의식에 속했던 民俗은 「부르죠아」의이라 하여 완전히 폐지된 것으로 보이며 서민층의 주변과 生活樣式을 규정하는 민속놀이 分野만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北韓에서의 民俗學은 体制適應을 위한 精神

的 基盤形成을 위해 인위적으로 변질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点에서 民俗芸術 分野의 交流는 단순한 交流라는 次元에서가 아니라 전통적인 민족감정의 再結合이라고 하는 次元에서 접근 되어야 할 것이다.

나) 民俗交流의 内容

한마디로 말해서 南北韓 间의 民俗芸術의 交流는 体制나 理念上의 差異에 의한 文化類型의 相異性 때문에 본래 民族의 전통적인 文化를 再發見하고 統合시키는데 목적을 둔 순수한 것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상당한 限界性이 있다고 보겠다. 이와같은 限界性을 인정하고 민족감정의 저변에 흐르는 民俗關係를 發見 交流함으로써单一文化圈에 대한 再認識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선 가능한 것부터 고려해 보면 第一段階로 南北双方間에 發表된 잡지·연구논문·民俗關係 資料등의 相互交換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段階로는 人的交流를 行하는 方法으로 民俗博物館의 相互交流 관람이나 연구소 시찰 또는 民俗무용 공연의 相互交流 및 共同研究調查(民謡·說話등)를 行하는 것이다. 이러한 具体的인 交流內容을 전달하는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民俗交流에 대한 南北間의 相互理解와 共同努力이 先行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民俗交流가 政治的으로 利用되는 경우 그 진전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第 3 節 宗 教 交 流

宗教는 本質的으로 人間關係의 内面性에 관계되는 問題들을 다루며 社會的으로 和解者의 機能을 수행한다는 点에서 南北間의 分析 극복을 위한 좋은 代案이 될 수 있다. 南北間의 宗教交流한 双方間의 宗教人이나 그 团體들간의 接触·對話·往來 등을 通해 점진적으로 民族의 再統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意義를 찾아 볼 수 있다. 概念上 宗教交流에 있어서도 단순히 어느 一方에 의한 他方에의 宣教活動의 次元을 벗어나 人道主義的 側面에서 社會的 責任을 강조하고 나아가 民族的 統一課業에 对한 問題意識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宗教의 交流의 問題를 검토하는데 있어서는 우선 北韓에서의 宗教實態를 조사 분석하고 나아가 南北間의 宗教交流의 가능성을 고찰 解析하는 것이 必要하다.

가) 北韓에서의 宗教

共產主義 社會에서는 원칙적으로 宗教는 착취자와 支配階級이 社會的 모순을合理化하기 위하여 만들어 낸 社會的 產物이라고 批難한다. 北韓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1946年 2月 8日에 발족한 「北朝鮮人民委員會」에서는 바로 3月 5日 소위 土地改革法令을 發表하여 北韓 전역을 社會主義化하기始作하였으며 이에 따라 성당, 사원 등 宗教 재단 소유 토지도 물수되고 宗教에 对한 탄압은 本格화하기始作했다. 그 後 金日成政權은 계속해서 宗教 말살政策을 수행하였으며 反宗教運動에서는 「宗敎는 科學과 건설의 적이며 우리 人民의 社會主義 共產主義 건설을 위한 자각적이고 意識的인

鬪爭을 방해하는 큰 장애물」이라고 하여 「非科学的인 宗教에 对한 잔재를 뿐아야 한다」고 主張하였다. 따라서 北韓에서는 自由主義国家에서처럼 실질적인 内容과 下部構造를 가진 宗教團体가 거의 存在하지 않는 형편이다. 現在 명칭에 불과한 北韓의 宗教團体로는 「北朝鮮基督教聯盟」 「조선불교도연맹」이 있으며 宗教團体의 政党으로 「천도교청우당」이 있을 뿐이다. 실제로 北韓에서의 종교탄압은 金日成一人独裁体制를 구축하기 위한 必然的 結果였으며 共產主義의 人間을 養成하는 과정에서 당연한 것이었다.

北韓住民은 宗教自由가 아니라 金日成의 唯一思想만을 허용받고 있으며 「革命伝統教養」이라는 内容으로 세뇌教育을 받아왔다. 이 러한 狀況에서 南北韓間의 宗教的 領域에 있어서의 交流範囲는 상당히 줄어 들게 된다.

나) 宗教交流의 内容

現在 진행중인 南北韓赤十字 会談을 通한 人道主義의 対話自體가 「딜레머」에 빠져 있는 狀況에서 宗教的 側面에서의 対話나 接触도 极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곧 宗教的 側面에서 南北韓交流의 共通點을 찾기 어렵다는 것을 意味한다. 그러나 宗教가 神만의 問題를 論議하는 것이 아니라는 点을 전제로 할 때 交流의 内容은 다른 領域에서 摸索될 수 있다. 例로서 1965年 4月 独逸의 「찰즈부르그」에서 「카톨릭」 조직인 「파울즈·케젤사프트」가 주최한 「현대의 마르크스主義者와 基督教徒」라는 주제의 모임에서 논의된 소위 「宗教에 있어서의 人間化와 世俗化的 問題」가 宗教的 交流의 重要한 한 内容이 될 수 있다.

이는 상당히 추상적인 意味를 갖는다는데서 비판될 수 있지만
南北韓의 宗教的 交流의 共通点을 發見하려고 할 때 암시적인 요소를
지닌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로저 가로디」(Roger Garaudy,
「프랑스」의 공산주의자)가 주장한 바와 같이 「마르크스」主義의
人間主義는 人民이 人間이기 때문에 人間의 生死問題, 人間의 미래,
人間의 思想과 영혼등의 問題에 對한 해답은 本質的으로 宗教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宗教的 交流는 부수적으로 이질적
体制間의 平和的 共存關係를 維持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相
互間의 不信을 감소시킬 수 있는 效果를 가져올 수 있다. 마라
서 宗教人們간의 交流나 對話は 단순히 相對方에 대한 宣敎事業이
라는 관점을 벗어나야 하며 보다 더 現実的인 과제를 中心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南北韓關係에서 宗教的 交流는 民族的 統一이라
는 共通的 課題에서 출발해야 하며 점차 宗敎의 社會的 機能을
강조하는 方向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第 4 節 觀 光 交 流

가) 觀光交流의 意義

觀光의 概念은 狹義와 広義 두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狹
義로 보면 觀光이란 단순히 다른 地域이나 다른 나라의 風景 또
는 風俗 따위를 시찰하는 여행을 의미하며, 广義로는 이외에도 다른
나라의 文物制度를 視察見學하는 것까지도 포함하게 된다.
또한 觀光이란 名勝地와 歷史的 芸術的 遺蹟地를 探勝하러 다니

는 여행이며, 따라서 여기에는 交流를 위한 속박 오락등의 설비와 시설문제가 수반된다. 우리가 南北韓間의 社会文化交流中에서 相互間 觀光旅行을 그 内容中의 하나로서 택한 것은 이것이 南北關係의 安定化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南北間에 相互觀光의 機会를 통해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피부로 느낌으로써 視聽覺을 통한 科学的 認識을 통해서 서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동안의 南北相互間에 있었던 허위 의혹 선전 등에 의한 認識錯誤를 是正할 수 있다는 데서 커다란 意義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社会体制上 우리와는 너무나도 다른 北韓에 있어서 觀光概念이 어떻게 파악되고 있느냐가 重要的 問題이다. 北韓에서는 아직도 觀光을 非生產的 非社會主義的 行動으로 파악하고 있는 면이 많은 것 같다. 現代生活에 있어서 觀光은 衣食住 다음의 第4의 生活必需品으로 간주되고 있음을 전체로 할 때 南北韓觀光交流의 問題에 있어서는相互間에 觀光concept에 대한 理論的合理性을 定立하는 것이 要求된다.

나) 觀光交流의 類型

(1) 隨伴招待觀光

이는 일정한 機関에서 정해진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觀光을 말한다. 本来는 觀光以外의 目的을 가지고 相互間 往來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觀光效果를 가져올 수 있게 된다. 지난 南北赤十字會談의 本會談時와 또는 調節委員會 共同委員長會談時 平壤과 서울에서 번갈아 실시하였던 觀光이 이 유형에 속한다. 이

유형의 魏光은 制限된 범위에서 실시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制限된 범위에서의 觀光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것이 활발하게 展開된다면 南北双方間에 理解增進과 文化交流를 촉진시키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2) 視察見學觀光

視察見學觀光이라 함은 南北間의 外觀的 施設物 또는 運營 상태등을 相互 視察하고 동시에 双方間의 장단점을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同質的인 共同体의 意識을 증대시킬 수 있게 된다. 또한 이 觀光을 통해 觀光者 個人이나 集團들은 理性的 判断과 相互比較的 批判能力을 가지고 의식구조상에서 同調的適應倾向이나 或은 반목적 감정을 가질 수 있다.

이로부터 双方間의 갈등적 狀況에 대한 問題解決의 出發點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3) 相逢招請觀光

이 觀光의 代表的 實例로는 戰爭에 기인한 離散家族들의 再会相逢등이 있다. 다른 어떠한 目的보다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행하는 觀光旅行을 의미한다. 크게 보아 戰爭에서 서로가 된 사람들의相互釋放交換도 이 유형의 觀光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4) 自由旅行觀光

이 觀光은 보통 自由世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國内外의 自由旅行을 말한다. 南北間에 있어서 이와 같은 觀光은 가까운

시일안에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다. 즉 南北關係가 고도로 개선되어 相互間에 往來의 自由통행이 보장되는 성숙된 조건 하에서만 실시될 수 있는 것으로 최종단계의 觀光旅行을 의미한다.

第 5 節 通 信 交 流

가) 通信交流의 概念

一般的으로 通信이란 人間의 意思와 思想을 서로 교환하기 위해 마련된 一切의 수단을 말한다. 그리고 이와같은 의사전달과 사상교환을 위해 마련된 人的物的 설비등의 수단을 통하여 일정한 대価를 받는 조건내지 制度下에서의 조직적이며 계속적인 활동을 通信事業이라 規定하고 있다. 보통 通信은 그 전달내지 교환하는 수단과 方法에 따라 우선 우편, 전신, 전화로 区別이 된다.

南北關係가 根本적으로 緊張緩和에로 진전되는 것을 바라고 있다면 通信交流는 무엇보다도 그러한 問題를 解決하는 매개체 역할을 수행하는 특별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通信施設은 事實上 東西解冰 무드를 가져오는데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었다. 1962年 「キュバ」위기를 계기로 美·蘇間に 設置된 「하트라인」(Hotline)은 「케네디」大統領이 말한 바와 같이 「급변하는 情勢에 대비한 신속하고 밀을만한 通信設置의 必要性을 충족시킨 조치였다」. 韓半島內에서도 72年 7月4日 發表된 7·4南北共同声明에 따라 서울-平壤間 「하트라인」이 設置되었으며 비록 南北間의 對話가 새로운 「딜레머」에 빠져있다 하더라도 일정한 領域에서 南北 相互間

의 의사전달의 역할을 하고 있다. 南北間의 通信交流는 韓半島의 解決 무드」의 정도와 多方面的 交流進行狀況에 따라 여러가지 形態로 진전될 수 있으며 우선 公共機關의 通信交流와 非政治的 次元에서의 人的・物的交流를 뒷받침하는 通信交流가 행해질 수 있다.

특히 現在 南北赤十字會談을 通해 논의되고 있는 離散家族에 對한 南北相互間의 通信交流가 행해질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이다. 一千萬 離散家族의 生死 및 所在를 확인해 주고 相互間에 自由로운 往來를 알선해 주며 이들이 再結合할 수 있도록 하는 媒介의役割로서 南北間 通信交流는 特別한 意義를 가질 수 있다. 南北間 通信交流의 범주는 双方間의 對話와 接觸이 점차 확대 발전되어감에 따라 더욱 커질 것이며, 또한 그 자체가 南北關係를 改善시키는데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나) 通信交流의 形態

南北間 通信交流에는 그 方法에 따라 ① 書信交流 ② 電報
交流 ③ 電話交流의 3가지 形態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① 書信交流

南北間의 書信交流의 方法에 있어서 첫째로 南北韓 当事者間의 直接적인 交流方法과, 둘째로 第3國이나 또는 國際赤十字社 같은 國際的 조직을 통하는 方法이 있을 수 있다. 南北間 書信交流에는 여러가지 곤란한 問題들이 수반된다. 대량적인 住所 확인, 書信의 비밀과 自由保障, 書信의 政治的 利用의 防止 등의 問題點을 지적해 볼 수 있다. 먼저 書信交換에 있어서는 双方間에 전달의

確實性이 保障되도록 하여야 하며, 書信 양식이나 内容에 있어서도
일정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 그 이외에 書信의 交換場所의
決定과 交流時의 우표 사용 문제도 解決되어야 한다. 그리고 南北間의
分斷으로 인해 發生된 家族概念의 차이에서 오는 여러 가지 問題點
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書信의 發信人과 受信人에
대한 신분 보장의 問題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書信交
流가 政治的 目的을 위해 利用되는 경우, 오히려 그와 같은 南北關係에
부정적인 効果를 미치게 될 것이다.

② 電報交流

이와 같은 交流方式에 있어서도 書信交流에 따르게 되는 제
반 한계성은 그대로 内包된다고 보겠다. 電報의 相互交流는 초기
단계에서는 家族의 生死확인 安否의 書信交流가 있은 후 相對方의
住所나 또는 受信인이 밝혀진 후에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南北
間의 電報交流가 이루어 지기 까지에는 南北間의 電信에 관한 相互
間의 協定이 先行되어야 하며, 그 후에는 지금까지 分斷으로 因해 끊어
진 電信路線을 연결하는 問題가 뒤따르게 될 것이다. 이 問題가
解決된 다음에도 南北間의 실무자선에서 電報交流에 대한 具體的方法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電報는 書信에 비해 간결하고
比較的 時間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한 측면을 内包하고
있다.

③ 電話交流

南北間에는 이미 7·4共同声明에서의 합의에 따라 直通電話

가 가설되었다. 共同声明에서는 自主的이고 平和的인 統一을 기약하고 民族的 대단결을 도모한다는 원칙에서 돌발적인 軍事的 事故를防止하고 南北間に 제기 되는 問題들을 直接·迅速·正確히 처리하기 위한 方法으로 서울-平壤間 상설 直通電話 가설을 밝혔다. 이 외에도 南北韓赤十字會談과 南北調節委員會 会談을 위해서 각기 南北을 연결하는 유선회선수가 20個 있으며 이 가운데에는 新聞과 通信用 2회선 放送用 1회선도 포함되어 있다. 現在까지 이와같은 電話交流施設은 公式的인 일정기관간의 의사전달을 위해 使用되고 있을 뿐 광범위하게 민간『레벨』에서의 交流는 허용되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물론 아 단계에 이르기 까지에는 아직 시기상 조건 만은 틀림없다.

南北韓의 電話交流는 政府 및 公式的인 단체들 간의 交流를 제외하고 個人間의 通話가 이루어 쳐도 매우 어려운 問題가 되 따르게 된다. 왜냐하면 北韓에서의 전화가설은 반드시 党의 방침에 따라 機関, 団體, 企業所, 工場 그리고 군당위원회장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에게만 한정 되었고, 一般 住民들에게는 일체의 私用電話가 불허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南北間의 電話交流가 보편적으로 이루어 지기 위해서는 体制上의 鑫쇄성이 극복되고 北韓의 社會構造가 어느 정도 변질되어야 한다는 명제가 성립된다. 이밖에는 南北間의 通信交流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될 수 있다.

1. 記者·文化人 交流

2 刊行物 交換

3 新聞通信社 支局의 交換設置

이들은 南北間의 通信交流의 狀態가 상당히 진전을 보게 된 후기 단계에서 실현될 수 있는 形態들이다.

第 6 節 体 育 交 流

가) 北韓에서의 体育

北韓은 解放直後부터 소위 「社會主義國家建設을 위한 騏士」 를 養成하기 위한 一環으로 体育의 大衆化에 注力해 왔다. 이를 위해 制度的으로 1948 年 7 月 8 日 人民体力검정제도에 관한 人民 委員會 教育局 分令 제八号를 發表하였다. 北韓에서는 体育活動을 生產勞動과 결부시키며 동시에 国防과도 연결시켜 国防体育를 장려하고 있다. 특히 1967 年부터는 「國防体育을 為主로 体育을 大衆化하자」라는 口号를 내걸고 全體人民의 体力向上이라는 명목하에 사격, 산악행군, 장애물 넘기, 수류탄 던지기, 「트랙 더」운전, 有無線通信操作法, 무기 분해결합 등 실질적으로 군사 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北韓에서의 体育活動은 集團体育 혹은 군중체육으로 展開된다. 体育大会나 경기에 있어서도 수천, 수만명이 모인 集團 体操의 장려나 集團 달리기, 便紙伝達法 등을 행하고 있다. 그외에 北韓은 군중체육에 치중하며 그 単位로 학교나 社勞青등이 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優秀体育人이 養成된다. 교육행정면에서도 体育活動을 철저히 포함하여 1日1時間 以上의 学校体育과 学校入学

試験에 体育科目을 포함시킬 것을 규정화 하고 있다.

現在 北韓에서의 体育活動은 外交政策의 일환으로 활용되고 있다.

70年 이후부터는 종래 共產權에서만 국한되었던 北韓의 体育活動을 拓大하여 「아시아」地域을 중심으로 일부 서방 국가에까지 뻗쳐지고 있는 형편이다. 여기서 体育活動은 한층 더 政治性을 띠게 되었으며 대외적 宣伝効果에 치중하게 되었다.

이상에서 본 바를 요약해 보면 北韓의 体育活動은 ① 集團体育活動을 통한 国防体育위주의 体育의 全 人民化 ② 体育의 大衆化를 통한 政治思想敎養事業의 일환 ③ 대외적 지위향상을 위한 수단 ④ 生產活動과 体育活動의 結合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나) 体育交流의 内容

南北間의 体育交流의 가능성은 두가지 측면에서 고려해 볼 수 있다. 하나는 南北間의 직접적인 体育交流가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第3國의 국제경기장에서의 南北間의 体育交流 및 接触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北韓 자체가 대외적 경기 참가에 대한 폐쇄적 소극적 자세를 탈피하고 現在와 같이 적극적인 參与意思를 갖는한 海外에서의 南北間의 体育交流 및 接触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본래 共產主義 立場에서 体育概念은 3 단계로 변천된다. 즉 革命進行過程에서는 体育을 등한시 하다가 権力を 장악한 후에는 이른바 「勞動과 国防을 준비」시킨다는 名目下에 体육을 친흥시키고 뒤이어 政治宣伝 目的으로 우수팀을 養成하여 國제경기에 參加시킨다. 이러한 觀點에서 볼 때 現在 北韓은 2 단계와

3 단계를 병행시켜 体育活動을 展開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南北間의 体育交流에 있어서는 ① 体育關係 자료의 교환 ② 体育人交流 (선수단 교환) ③ 國際경기에의 개별적 參加 ④ 國際경기에의 단一팀구성 등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体育交流의 가능성에 있어서는 우선 体育分野의 독자성이 허용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体育活動에 있어서 政治性이 배제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体育活動에 있어서 정치성이 배제 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南北間의 体育交流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現代世界에서 体育外交가 갖는 비중은 크기 때문에 南北双方間に 성급한 体育交流는 점진적인 統一接近에 불리한 파급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 따라서 体育交流는 그 자체에 있어서도 단계적 交流方式을 취해야 한다. 이는 국제경기의 參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南北間의 体育交流는 무엇보다도 순수한 의미에서 民族 재통합의 통로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第 7 節 社会團体의 交 流

가) 北韓에서의 社会團体

北韓의 社会團体들은 共產主義의 全體主義의 「이데올로기」에 의해一律的으로 政治化되어 있으며 따라서 集團으로서의 自律性을 찾아보기는 극히 힘들다. 좀더 具体적으로 말하면 北韓의 모든 社会團体는 勞動黨의 政策을 執行하는데 일종의 전도적·교량적 역할을 함으로써 党의 先導體라고 불리운다. 즉 北韓에서는 社会團

体가 「프롤레타리아」 独裁体系의 有機的 構成成分으로 規定되고 있으며 이 「프롤레타리아」 独裁体系 가운데 指導的 力量으로 되고 있는 조선 노동당의 路線과 政策을 執行하는 Belt的 役割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社会團體들이다.

이떠한 点에서 南韓에서와 같은 非「이데올로기」의 利益中心의 結社體로서의 社会團體는 北韓에서는 찾아볼 수 없으며 모두가 「이데올로기」의 政治組織의 일부가 되고 있다. 그리고 団體에의 加入도 形式上으로는 自律的 加入에 의한다고 規定되어 있지만 實제로는 義務的이며 「멤버쉽」의 重複性을 철저하게 維持하고 있다. 따라서 이떠한 경우든 社會構成員들은 他律的 組織生活의 노예로 된다. 모든 团體는 労動黨과 같은 「피라미드」식의 組織体系를 가지며 엄격한 位階的 構造를 가진다.

全体的으로 볼때 北韓의 社会團體들은 概念上 多元的 社會構造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自由民王主義에서의 集團과는 판이한 目的과 構造를 가지며 動員体制에 의한 政治化를 특징으로 한다. 더우기 統制「매카니즘」이 철저하게 二重化(組織內의 構造와 組織者의 党에 의한 統制)되어 있어 团體의 自律性이란 전혀 허용되지 않는 형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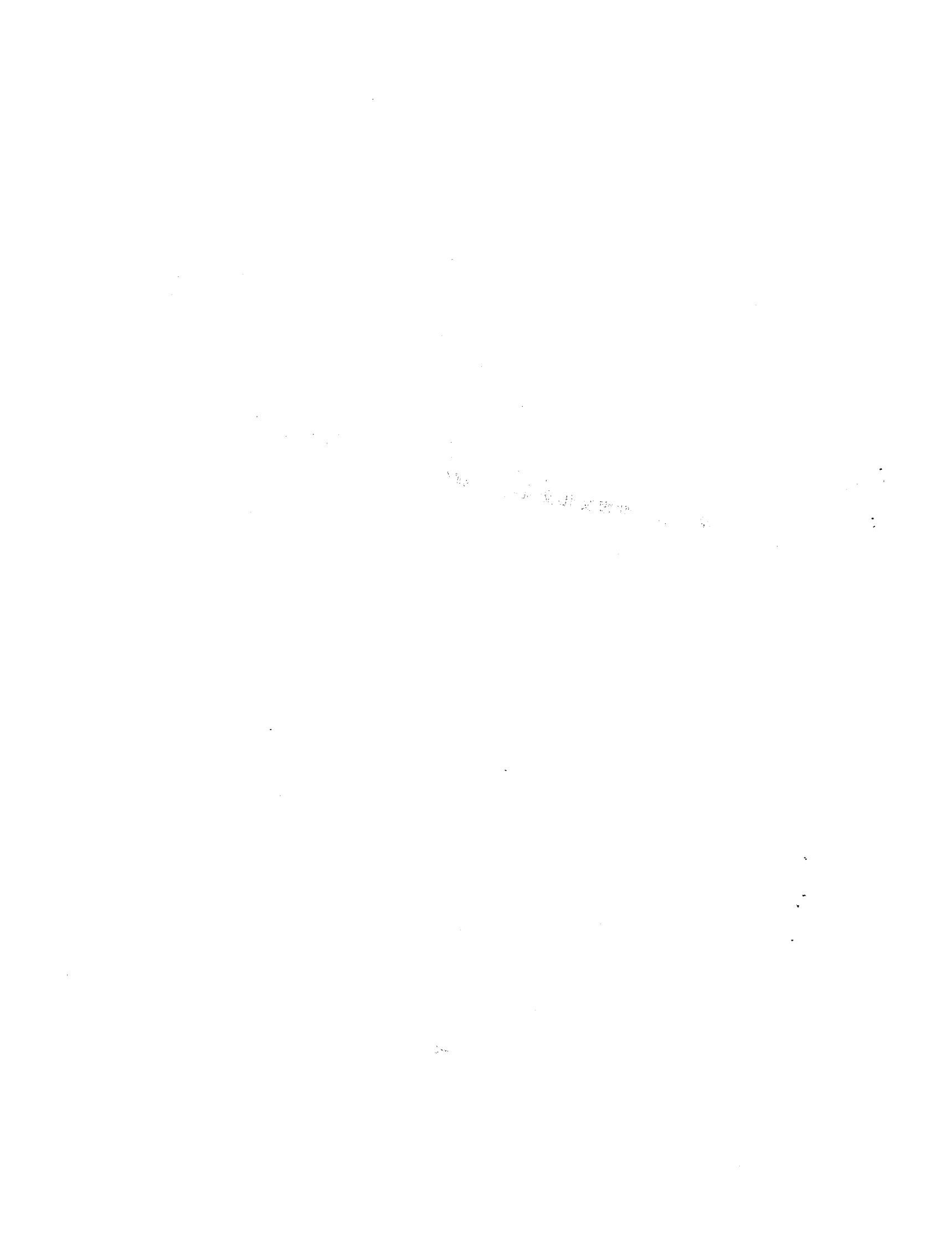
나) 社会團體交流의 内容

南北間에 社会團體交流를 시도하려고 할때 그 交流의 公通점 을 찾아내기는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社会團體의範圍가 광범하고 막연할 뿐만 아니라 또한 南北間에 그와 같은 交流의 目標와 対象에 대한 합의를 그들의 革命路線과 직결시키고 있어 복잡한

問題를 제기시키고 있다. 다시 말하면 北韓은 기본적으로 社会團體의 交流를 南韓에서 革命勢力を 조장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간주하고 있다. 北韓은 金日成이 주장하는 대로 社会團體의 交流를 「南北韓의 各 政黨・社會團體 대표와 각계 인사가 參加하는 政治協商會議」와 연결시켜 이를 政治協商의 일환으로 하려고 한다. 이에 반해 南韓의 입장은 다르다. 南韓에서는 社会團體의 交流가 學術・藝術・體育등의 交流와 마찬가지로 점진적인 統一接近의 基本条件을 마련하기 위한 相互理解增進手段으로 解釈한다. 이러한 点에서 南北間의 社会團體交流는 커다란 差異點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비록 体制構造上의 差異나 戰略上 포함된 理念이나 目標上의 差異가 크게 부각된다 할지라도 南北韓間의 社会團體交流는 원칙적으로 非政治的 領域에서의 統一接近을 시도한다는 의미에서 그意義를 発見할 수 있으며 또한 収斂論의in 脈絡속에서 그 正當性을 찾아볼 수 있다. 우선 社会團體中 藝術이나 學術・體育・宗教등의 分野를 제외하고(이미 앞 부분에서 취급되었음) 특히 勞動・青年・女性團體分野에서의 交流가 제기될 수 있다.

第5章 社會文化交流의 戰略的 側面



第5章 社會文化 交流의 戰略的 側面

第1節 段階的 側面

지금까지 다방면에 걸친 南北間의 社會文化 교류의 가능한 전개와 内容을 알아보았다. 本質的으로 이들 분야에 대한 交流는 南北韓의 統一接近에 있어 단계성과 漸進性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統一接近戰略은 分斷이 4년세기나 지난 民族간의 理念体制 制度上의 심화된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現實主義的 方法으로 評價 될 수 있다. 더우기 戰爭이라는 民族的 비극을 회피하고 平和的 統一을 추구하는 立場에서 그와 같은 方法은 한층더 타당한 論理로 認定된다.

마찬가지로 社會文化 諸分野에 관한 交流를 시도해 나가는데 있어서도 일종의 段階性 있는 戰略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것은 우선 可能한 분야에서부터 交流를 시도해 나가야 한다는 전제에 바탕을 둔다. 南北間의 社會文化 분야에서 交流가 可能한 諸分野들은 그 자체가 포함하고 있는 性格이나 모든 交流가 갖는 과급효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類型化시켜볼 수 있다.

첫째로 그 分野가 本質上 「이데올로기」性을 포함하고 있느냐 또는 어느 정도 그와 같은 面을 배제시킬 수 있느냐에 따라 「이데올로기」의 分野와 非「이데올로기」의 分野로 分類시킬 수 있다.

이것은 南北間에 있어서 그러한 갈등이 弱한 分野로 부터 強한 分野으로-

定한 順位를 가지고 社会文化 分野를 分類시킬 수 있음을 듯한다.

둘째로 그 分野의 交流가 南北 쌍방에 結果的으로 미치게 될
효과가 競争的이냐 혹은 非競爭的인 것인가에 따라 交流分野를 나
누어 볼 수 있다. 경쟁적인 分野는 지나치게 南北間의 감정 대
立을 強化시킬 수도 있으며 오히려 交流 그 자체를 無意味하게 할
지도 모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諸分類 基準은 절대적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다만
相對的으로 程度의 差異를 포함하고 있다.

우리는 극히 가설적인 次元에서 이와 같은 두가지 基準에 따라
社会文化 分野를 4가지로 類型化시켜 볼 수 있다.

첫째로 非「이데올로기」의- 非競爭的 分野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形態에서는 南北間의 交流上에 있어 갈등적 側面이 최소한으로
줄여질 수 있는 分野로 비교적 南北 쌍방간에 쉽게 공통점을 發
見할 수 있게 된다.例로서 觀光이나 通信交流 特히 離散家族
찾기등은 이 分野에 속한다고 하겠다. 이를 分野에서는 政治性이
眞在되며 보이는 오히려 實用的(Pragmatic)側面이 強調되어 쌍
방간에 利害得失의 범위가 극소화될 수 있게 된다.

둘째로 非「이데올로기」의- 競争的 分野를 들 수 있다. 여기서
는 實用的 性格이 強하게 부각 되지만 그 결과에 있어서는 南北
雙方간에 競争性을 띠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경제적 交流나 体
育交流등은 이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分野 自体의 성격
상 實際的 非政治的 要素를 내포 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競争的

과급 效果를 가져와 오히려 다른 側面에서의 対立과 갈등을 유발 시킬 수 있게 된다.

세째로 「이데올로기」的 非競爭的 分野가 있을 수 있다. 内容이나 性格上 南北雙方간의 異質의인 「이데올로기」性을 내포하면서도 競爭性을 극소화 시킬 수 있는 分野를 말한다. 이 경우에는 民俗예술이나 宗教的 分野등을 代表的인 것으로 들 수 있다. 앞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北韓에서의 民俗藝術이나 宗教는 한민족의 순수한 伝統이나 價値를 反映하기 보다는 社會主義的 「이데올로기」로 變質되었으며 政治的 目的을 達成하기 위한 수단으로 동원되고 있다.

따라서 이해관계 面에서는 뚜렷하게 利益과 손실 관계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각기 雙方의 体制上이나 理念上의 特殊性을 크게 反映하고 있는 것이 이 分野라고 말할 수 있다.

네째로는 「이데올로기」的 競爭的 分野를 지적할 수 있다. 學術的 分野가 이것의 전형적인 범주로서 여기에서는 심각한 見解 差異와 갈등적 요소를 많이 드러내게 된다. 비록 자료교환이나 순수한 學術交流로서 規定될 때 그와 같은 側面은 별로 介在될 수 없겠지만 이미 北韓에서의 學問이란 政治的 「이데올로기」性을 대변하며 또한 自己들의 學問의 우위성과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立場이고 보면 이 분야에서야 말로 雙方間의 「이데올로기」의 対立性을 크게 들어낼 수 있게 된다고 보겠다. (표: 참조)

이상과 같은 社会文化 分野의 類型化가 지극히 자의적이고 보편성을 잃는 인상을 준다 하더라도 이는 南北韓 간의 社会文化 交流를 추진시키기 위해 必要한 戰略的 便宜性을 나타낸 것으로 그 유용성을 찾아 낼 수 있다. 南北間에 일괄적 交流가 가능한 상황이 초래하지 않는 한 그리고 統一 接近에 있어서도 점진적 단계적 방법이 현실적인 것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는 한 社会文化 交流를 시도 하는데 있어서도 그와 같은 類型化는 必要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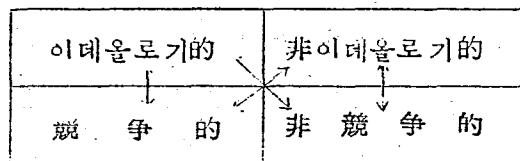
단계적 交流라는 觀點에서 볼 때 우선 非「이데올로기」의 - 非競爭的 分野에서부터 始作하여 그다음 非「이데올로기」의 - 競争的 分野, 「이데올로기」의 - 非競爭的 分野 그리고 「이데올로기」의 - 競争的 分野의 一定한 연속성(Sequence) 속에서 南北間의 社会文化 交流가 시도되는 것이 현실적인 接近方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連續性의 개념에 바탕을 두고 交流가 추진될 때 그 과정은 비교적 安定化될 수 있으며 根本的으로 점진적 긴장완화의 공식에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일괄적인 交流나 또는 그와 같은 연속성을 무시한 交流시도는 오히려 現在의 南北關係에서 交流상황 자체를 더욱 不安하게 만들수 있으며 結果적으로 交流 자체를 不可能하게 할지도 모른다.

결국 社会文化 交流에 있어서도 交流를 通해 어느 一方이 他方 보다 월등한 利得을 보려고 하거나 또는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交流란 不可能하게 되며 單純한 宣伝的 수단에 그치게

된다. 그대신 교류를 통해 南北 쌍방이 이익을 보거나 또는 이를 許容할 수 있는 狀況 条件이 마련된 경우에 南北間 社會文化 交流는 어느 정도 実効를 거둘 수 있게 된다.

〈표〉 (社会文化 交流의 類型化)



第2節 · 構造的 · 側面

南北間의 社會文化 交流를 實踐에 옮기기 위해서는 구조적으로 두 가지 要件이 充足되어야 한다.

하나는 이 交流를 전담하고 또 研究할 수 있는 制度的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势力 (專門家)을 養成하는 것이다. 制度 確立에 있어서는 우선 全般的으로 이와 같은 交流의 責任과 權限을 맡을 수 있는 기구의 創設이나 拡大가先行되어야 하며 이와 더불어 社會文化 分野의 세분화에 따른 각 專門機構가 確立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實際的으로 交流가 行해지기 以前에 이를 조직적 專門的으로 研究할 수 있는 体系의 確立이 時急하다.

學術 分野에 있어서는 北韓 研究에 대한 專門家的인 研究機關과 民俗博物館등을 설치하여 이 分野에 대한 광범위한 研究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社会團體의 交流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이
分野에 대한 조직의 整備 強化가 要求된다.

적어도 北韓과 対等한 규모나 응집력을 가진 조직체계, 그리고
뚜렷한 目標를 가진 社会團體의 育成이 必要하다 하겠다。萬若
南北韓 社会團體의 交流가 始作된다고 하는 경우 우리는 北韓의
「農勤盟」이나 「社勞青」에 해당될 만한 团体가 없을 뿐더러 事
實上 「女盟」과 대적할 만한 女性團體도 없는 형편이다。

이러한 点에서 첫째 北韓의 社会團體와 規模에 있어서는 組織의
結束力에 있어 対等한 团体들이 組織 확대 되어야 하겠고,
둘째로 기존단체 가운데 가장 規模가 크고 強力한 組織을 가진
「勞總」自體의 組織을 拡大 整備시키는 일이 必要하다고 하겠다。

体育交流에 있어서도 한가지 예를 들면 우리는 北韓의 職場單位
体育 서클에 対抗할 만한 対應措置가 이루어져야 하며 구조적인
면에서 우수한 선수들을 선발하여 중점적으로 育成개발 시킬 수
있도록 制度的 保障이 마련되어야 한다.

南北韓 社会文化 交流를 爲한 制度的 保障은 또한 이를 実質的
으로 實行할 수 있도록 하는 力의 養成을 必要로 한다. 여기서 力
이란 多方面에 걸친 專門家를 意味한다. 現實的으로 이들 分野에 対한 專門家
養成은 우선적으로 實現되어야 한다. 北韓에 対한 研究가 아직 보편화될 수 있
는 段階가 아니라고 할 때 이에 対한 研究体系를 組織的이고 持續
的으로 發展시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國家的

次元에서 巨大한 投資가 이루어져야 하며 幅 넓게 「엘리트」의 充員構造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交流를 전담할 수 있는 機構는 비교적 自律性을 가지고 운영되어야 하며 융통성 있는 組織體系를 갖추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民族統一이라는 歷史的 課題를 전제로 해서 그와 같은 機構는 政治權力의 영향 범주로 부터 벗어나 独自의인 조직과 운영 절차를 가져야 하며 상당히 장기적인 觀點에서 育成되어야 한다.

第3節 協商技術的 側面

南北交流를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 중요한 要素중 하나가 바로 協商技術의 開発이라고 하겠다. 本來 協商技術은 어떤 特定한 目的을 達成하기 위한 手段에 불과 하지만 이것이 外交關係나 또는 紛爭 去來上에 미치는 効果는 매우 크다.

특히 南北關係에 있어 긴장을 완화시키고 갈등의 위험을 最少限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어푸로치」로서 高度의 協商技術이 必要하게 된다.

南北交流를 어렵게 하는 要因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3 가지 要因을 들 수 있다.

이를 요인은 事実上 南北間의 協商意思나 그 技術開發을 곤란하게 한다.

첫째로 南北間의 갈등의 本質을 지적할 수 있다. 解放과 더불

어 分斷된 南北間에는 각기 離離적인 「이데올로기」의 対立 속에서
相異한 体制와 制度를 견지해 왔다. 무엇보다도 共產主義者들을
相對로 협상이나 交流를 시도한다는 것은 極히 不可能한 것으로
받아 들여쳤었다. 왜냐하면 共產主義者들은 「마르크스-레닌」
主義에서 自己들의 主張에 대한 絶對性의 논거를 갖고 있으며 社
會經濟的 構造를 바탕으로한 現實에 대한 客觀的 要素들을 믿는다.
따라서 相對方(이데올로기적으로 離離한 관계를 갖는 경우)과의
友好나 信義등과 같은 것은 추상적인 것으로 배제되었다. 이와
같이 自己들의 立場에 대한 絶對性을 강조하는 共產主義者들과 一
般 原則에 대한 合意에 도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따라서 一般 原則들에 대한 合意가 없는 경우 협상은 极히 어렵
게 된다.

둘째로 南北관계에서 協商을 곤란하게 한 要因을 戰後 國際政治
의 両極化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국제관계가 美蘇 中心의 양극
구조로 「블록」化 됨으로써 協商의 機会는 상당히 줄어들게 되었
고 그대신 冷戰的 対立이 격화될 수 밖에 없었다. 本来 主權國
家의 數가 줄어든 경우 協商관계가 경직화 되었음은 西歐에서 많
이 찾아볼 수 있다. 2次 大戰後 美蘇 초강대국이 서로 対立되
게 됨으로써 여기서는 協商을 展開시킬 수 있는 융통성 보다도
상당히 不安定한 관계 속에서 긴장과 갈등단이 고조되었다. 따라서
비교적 어느 한쪽이 弱化될 경우 그것은 곧 다른 한쪽의 相對的
強化로 받아 들여 졌으며 모든 일이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状况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狀況下에서는 現狀 (statusquo) 이 가장 安定되고 最善의 것으로 여겨졌으며 그대신 變化는 어떤 파국의 위험을 내포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와 같은 國際政治의 진장구조가 그대로 韓半島 狀況에 적용되었으며 그 결과 韓半島內에서의 南北間의 협상이나 交流의機會는 더욱 즐겁게 되었던 것이다.

세계로 南北간의 제반 문제에 대한 협상이나 交流는 共產主義者와의 협상이라는 問題에 대한 国民的 態度로 부터 한층 더 어렵게 되었다. 특히 6.25 戰爭을 겪은 韓國 国民의 共產主義에 대한 태도는 絶對的인 反共意識으로 일관되어 왔으며 南北雙方間의 不信과 적대감의 고조로 協商이나 交流의 여지는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현재에도 南北間에 일어나고 있는 제반 적대적 行爲 (간첩 침투나 기타 武力도발行爲 等)는 基本적으로 南北관계의 긴장 완화나 協商의 提案等과 같은 冷戰体制에 어떤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융통성 있는 사태 진전을 곤란하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은 協商의 장애물이 있음에도 不拘하고 韓半島內에서의 긴장 완화와 平和的 統一 接近을 為한 一環으로 社會文化 分野에서의 交流는 매우 중요한 意味를 갖는다고 보겠다. 왜냐하면 이 分野에 대한 交流의 試圖 自体가 南北관계를 冷戰体制로 부터 脱皮시켜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는 方向으로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分野에 대한 交流나 協商을 為해서도 다른 外交關係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일종의 去來技術 (Bargaining Technique) 이 必要하게 된다. 흔히 交流시도가 곤란하게 되는 理由중 하나는 交

流 그 自體의 方法의 不適合性에서 찾을 수 있게 된다. 보통 協商이나 交流試圖에 있어서는 상업적 分野에서 使用되는 公式이 적용된다. 즉 상업적 去來에 있어서는 게임의 法則이 通用되며 이에 따라 어떤 合意에 도달할 수 있다는 物質적 利害가 成立된다. 계속적인 관계에 대한 必要性에 의해 어떤 재재적 要素가 作用하며 대체로合理的論拠에 따라 雙方間에 見解의 一致를 보게 된다. 萬若 雙方이 각기 어떤 이득을 보게 된다고 생각할 경우 雙方은 해결점에 接하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協商論理는 共產主義者들과의 관계에서는 적용하기 힘들다. 여기서의 문제도 一定한 法則下에서의 조정의 問題가 아니라 法則 그 자체가 問題가 된다. 이로부터 高度의 協商 技術이 要求된다. 이를 위해서는

① 첫째로 協商이나 交流를 通해 이룩할 수 있는 가능한 것과 불 가능한 것을 分明하게 決定하고 실제 협상에 입할 경우에는 융통성 있는 제안을 하여 相對方과 約定、去來妥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빼로는 初期의 提案이 지나치게 不合理하게 보이는 경우 오히려 그러한 것이妥協을 이룰 수 있는 여지를 많이 内包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自由民主主義 社會에서는 表面上 极端적인 提案이 (本来는 그렇지 않지만) 大衆의 支持를 얻지 못하는 「딜레마」가 나타난다. 융통성을 갖기를 원하는 경우 最大限의 提案에서 出發하여 협의 과정에서 어떤 양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렇지 않고 萬若 實際로 믿고 있는 바를 提案할 경우 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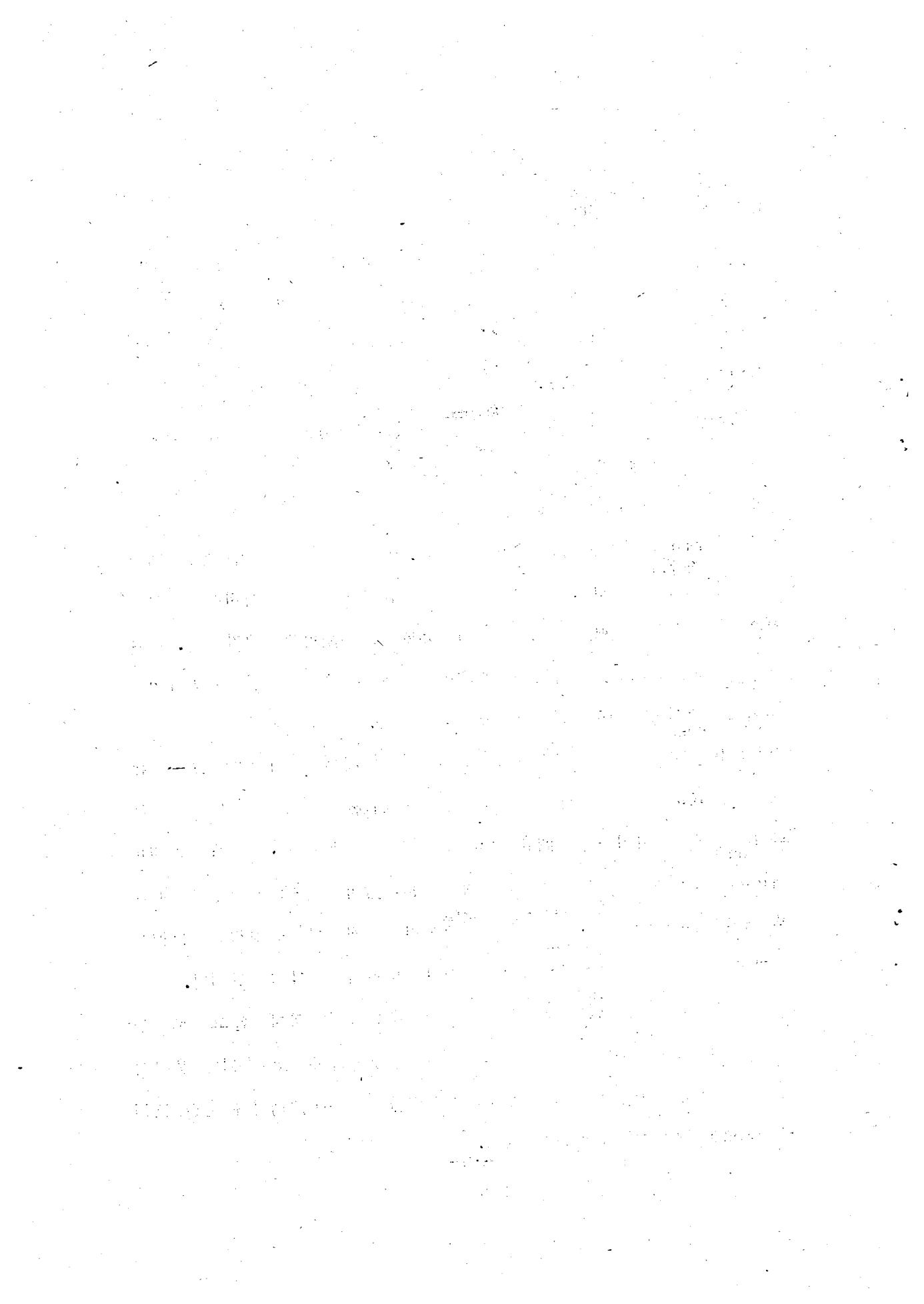
가피하게 경직된 態度를 보이게 된다.

둘째로 去來技術과 目的을 区別해야 한다。萬若 이러한 양자間의 区別이 불명瞭하게 認識되거나 또는 판단될 경우 協商관계는 커다란 혼란에 빠지게 된다。이것은 相對方의 의사를 正確히 파악하는 문제도 포함한다。즉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의 협상目的과 協商 그 自體의 技術을 혼돈할 경우 雙方間의 協商은 成功하기 힘들며 결국 어느 한쪽의 政治的 対決의 전시장이 되게 된다。

끝으로 協商技術을 고도로 증진 시키는데 있어서는 지나친 形式主義 (Formalism) 는 배제되어야 한다。아직도 正常的 關係로 진전 되기에는 너무도 멀다고 할 수 있는 南北關係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形式主義의 배제는 한층 더 必要한 要素라고 생각된다。그보다는 非公式的인 접촉이나 交流를 通해 協商의 관계를 拡大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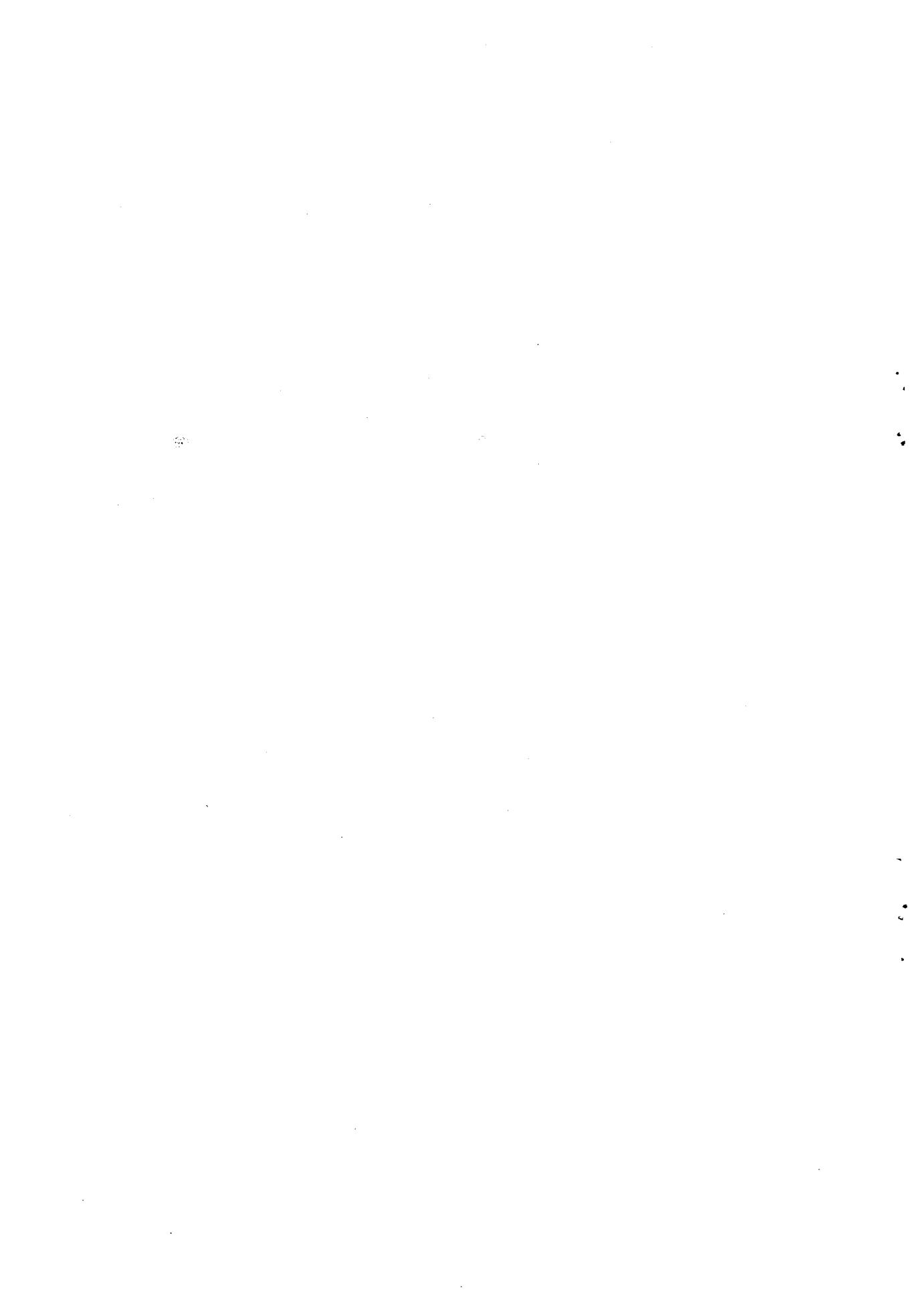
南北關係에서 긴장을 완화시키고 점진적 단계적인 平和的 統一 接近의 公式을 적용해 나가는데 있어 協商技術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러나 환상을 가지고 协商을 전개해서는 안된다。즉 協商의 解決의 可能性을 믿도록 하기 위해 相對方의 基本的 변형을前提로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보다는 北韓보다 훨씬 더 공정적인 目標를 가지고 남북관계의 긴장 완화를 위해 接近해 가야 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安保를 위태롭게 하지 않고 또 우리의 가치와 一致하는 解決의 방안이 무엇인가를決定하는 문제이다。이러한 것이決定된 후에 융통성있는 协商技術이나 交流技術은 美德 (Virtue) 이 될 수 있다。



論

結



結論

지금까지 南北韓의 社會文化分野에 결친 諸交流의 内容과 그 協商 戰略的 側面을 考察해 보았다.

앞에서도 言及한 바와 같이 南北關係는 서로 斷絕된 狀況에서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交流에 임하기에 앞서 交流의 對象을 검토 해야 하며 또한 交流영역을 發見해 볼 수 있도록 하는 作業이先行되어야 한다. 그리고 交流의 内容이 決定된 다음 그것을 촉진 시킬 수 있는 方法이 모색되어야 한다. 理論的으로 社會文化 交流는 두 가지 基本前提에 바탕을 둔다.

하나는 機能主義的 収斂論이다. 이것은 勢力的 要素를 배제하고 非政治的 領域에서 交流의 可能性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雙方間의 갈등적 요소를 줄일 수 있게 된다는 가설에서 發生한다. 即 南北雙方間에 交流와 協力を 相互作用이 活發해짐으로써 궁극적으로 機能主義的 統合이 可能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漸進的 단계적 統一接近方式이다. 南北間에 交流나 協力を 모색하는 과정은 일괄적인 統一接近이 아니라 몇 단계 과정을 거쳐 統一으로 接近해야 된다는 것을 뜻한다. 事實上 分斷의 4半世紀가 지나는 동안 南北雙方에 각기 異質化되었던 体制나 構造를 일괄적으로 극복하여 統一을 모색 한다는 것은 現在로서는 戰爭 以外에는 非現実的 方法임을 알 수 있다. 그 이상 더 같은 民族間의 戰爭의 비극을 회피하고 自主的 平和的으로 祖國統一에 接近해야 된다는 命題는 특히 現代武器의 파괴력에 비추어 불

때 지극히 當然한 歷史的 再認識이라고 말할 수 있다.

南北間에 非政治的 分野 즉 社会文化 分野에서의 交流는 結果的으로 이와같은 統一接近 方法의 一環으로 추구될 수 있으며 南北間의 긴장완화를 가져올 수 있는 파급 効果를 미친다.

이와같은 理論的前提에서 南北間의 社会文化交流는 다방면에 걸쳐 시도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具体的인 문제가 간단히 言及되었다.

그러나 이 分野에 對한 交流의 試圖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點에서 限界性을 内包한다.

첫째로 南北關係는 처음부터 政治軍事的 関係에서 始作된 것이며 現在에도 이와같은 狀況은 繼續되고 있다. 따라서 機能主義的 接近法에 기반을 둔 社会文化交流가 어느 정도 実現될 수 있는가는 의문이다. 実際로 南北關係가 勢力的 要素와 非勢力的 要素로 分離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萬若 이兩者間의 分離가 어렵게 될 경우 南北間의 社会文化交流는 커다란 「딜레마」에 빠지게 될 것이다. 人道主義的 立場에서 南北間의 離散家族찾기 운동체인이 담보상태에 处하게된 根本 요인도 바로 南北關係의 政治「이데올로기」의 복잡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둘째로 協商技術과도 관련되는 問題이지만 南北間의 爵等의 本質이 社会文化分野에서의 相互作用을 저해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아직도 南北關係는 첨예화된 「이데올로기」의 對立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비록 주변 國際情勢가 和解「무드」로 전되고 있다 할지라도 北韓이 갖고 있는 共產主義 「이데올로기」의

排他性은 相對方과의 協商이나 交流를 無意味한 것으로 規定하고
一方으로 그 자신의 立場만을 主張하는 非妥協性을 노정하고 있
는 형편이다.

現代國際政治의 行動原理로서 보편화되어 있는 平和共存의 論理까
지도 否定하면서 계속해서 南韓에 對한 暴力革命戰略만을 수행하
려고 하는 北韓의 경직화된 「이데올로기」性은 根本적으로 南北關係의 긴장완화와 技能主義的 接近法을 곤란하게 하고 있다.

세째로 國際環境的 側面과 관련시켜 南北間의 交流와 접촉의 문
제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어느 의미에서는 이와 같은 分析方向이
극히 타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韓半島의 分斷自
体가 國際型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것은 戰後冷戰体制의 両
極化 속에서 「블록」間의 勢力範圍의 限界線으로 認定되어 왔음은
再論의 여지가 없다.

이제 國際政治의 勢力分布가 다원화해지고 또한 冷戰的 對立 보
다는 和解 「무드」속에서 戰後秩序를 克服해 나가려고 하는 추세
에서 韓半島 狀況은 어떤 變化에 直面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는 한마디로 말해서 韓半島 自体에 어떤 和解公式이 적용될지
도 모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南北間의 交流나 접촉은 비
교적 쉽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것은 民族共存을 志向하는 方向
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現在의 南北關係는 이러한豫
想을 극히 위험한 것으로 받아 들이게끔 한층 더 대치의 強度를
더해가고 있다.

이러한 観點에서 南北交流, 그 중에서도 社会文化交流가 가능해 질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強大国들間의 一種의 國제적 보장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적어도 韓半島 内部에서 소위 自主的인 交流나 접촉이 곤란하게 될 경우 이것은 國際的 壓力이나 保障下에서 克服될 수 있기 때문이다.

事實上 東西獨의 和解過程도 関係國家(特히 美·蘇)間의 和解體制가 先行된 후에 可能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東西獨 関係에서 客觀的 國際情勢로 하여금 東西和解에 接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서는 独逸 自体의 노력이 크게 作用하였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전례는 우리에게 커다란 암시를 준다고 하겠다.

즉 南北關係의 改善, 다시 말하면 南北關係에서 긴장을 완화시키고 可能한 範圍에서부터 相互交流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이니셔티브」를 잡고 적극적인 行動을 展開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록 北韓이 교조적인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종전의 路線을 견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선 우리는 對外情勢가 韓半島內에서의 긴장완화를 위해 作用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노력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우리立場에서는 韓半島에서의 긴장완화를 可能하게 할 수 있는 國際的 保障을 마련하기 위해 주변정세를 유도할 수 있는 적극적 政策 實踐이 最善의 方法이 될 수 있으며 이로부터 南北間의 諸 分野에 관한 交流도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参考文献

1. Ernst B. Haas, Beyond the Nation-state; Functionalism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4)
2. Claude Ake, A Theory of Political Integration. (Illinois: The Dorsey Press, 1967)
3. Karl W. Deutsch, Nationalism and Social Communication. (Cambridge: M. I. T. Press, 1966)
4. Amitai Etzioni, Political Unification.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1965)
5. Philip E. Jacob and James V. Tossano, eds., The Integration of Political Communication. (New York: J.B. Lippincott Co. 1964)
6. Henry A. Kissinger, The Necessity For Choice. (New York: Harper & Brothers Publishers, 1960)
7. Drew Middleton, The Atlantic Community. (New York: David McKay Co. Inc., 1965)
8. Lewis A. Coser, The Functions of Social Conflict.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LTD. 1968)
9. 朴在圭訳, 聯邦主義論 (Valevie Earle 編)
(慶南大学 極東問題研究所, 1974)
10. 申正鉉, 白鍾天編著, 國家安保論 (서울: 日新社, 1973)
11. 極東問題研究所編, 世界共産圏総鑑, 1972

그외 國土統一院刊 學術用役論文 多數 參考

